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더를 통해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41호

Thursday, July 17 2025 A

이진숙 두 딸 고교·대학 학비만 69만불

대학원 학비는 포함 안돼

이진숙(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버지니아 사립 기숙학교 메데이라스쿨(Madeira School) 등의 두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8년여간 약 69만달러(9억8천원)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 불평등 문제 (본보 7월14일자 1면)가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녀가 유학을 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액 약 69만 달러를 학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 약 9억8000만원, 송금 시점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약 7억2000만원이다. 후보자의 장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맥클린에 위치한 여자 기숙학교인 메데이라스쿨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카네기 멜런 대학에 재학했다. 메데이라스쿨은 9-12학년만 등록하는 여학생 기숙학교로, 명문 대학 입시를 위주로 교육하는 이른바 '칼리지 프렙' 학교다. 유에스뉴스닷컴에 의하면 이 학교 학생은 학년당 90명 이내로, 학생 대교



사 비율이 1대10이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포함한 1년 학비는 7만4500달러에 달했다.

니치닷컴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보딩스쿨 랭킹이 1위, 대학입시 준비 순위는 전국 70위, 버지니아 여자고교 1위, 버지니아 칼리지 프렙 2위, 버지니아 사립고교 2위 등을 기록했다.

등록학생의 53%가 소수계로, 한국 등 부유층 자녀의 조기유학이 잦은 곳으로 이름이 높다. 이 학교 백인 비율은 47.0%로 가장 높았으나, 아시아-태평양계는 22.5%에 달했다.

미국 국적자 외에 중국, 멕시코, 자메이카,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순으로 외국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녀 역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메데이라스쿨을 거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라이스 대학교에 등록했다.

이후 장녀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차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각각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고등학교와 대학(학부) 학비만 포함돼 있어, 제출하지 않은 대학원 학비를 포함할 경우 유학비용은 더욱 늘어 나게 된다.

김욱재 기자

‘주한미군 유지 법안’ 간신히 통과

법안 통과 직전 수정안 통해 반영
‘미군 감축 언제라도 가능’ 우려도



미 육군 제4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 전투여단 소속 병사들이 지난 5월 30일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내리고 있다. [로이터]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통째로 뺐다가 통과 직전 수정안을 통해서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포함했던 관련 조항이 이번 초안에서 빠진 걸 두고 주한미군 등 안보 사안도 거리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제안한 해당 수정안은 “미국 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역할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과 한국과 동맹 강화가 포함된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을 비롯해 수년째 유지돼 온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 11일 마이크 로저스(공화) 하원 군사위원장이 위원회에 공유했던 내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향후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했던 연방의회에도 트럼프식 고립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현주 기자

ICE 구치소 총격 한인 용의자 체포

송한일씨 델러스서 들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앞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송한일(32·사진)씨가 도주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

텍사스주 존슨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송씨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델러스 북부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됐다.

송씨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까지 동원됐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송씨는 과거에도 무장 대치 전력에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 2020년 텍사스주 오스틴 시위 현장에서 경찰 체포에 저항하며 가슴에 맨 소총을 들고 발사 자세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2023년에는 포트워스 지역에서 열린 드래그쇼 반대 시위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송씨는 무장 반파시스트 단체 ‘엘름포크 존 브라운 건클럽’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도 확인됐다.

강한길 기자

VA 주지사 모금액·지지율 격차 벌어져

오는 1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여야 후보 간 모금액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애비게일 스펀베르거(민주) 후보는 지금까지 2700만달러를 모금해 원심 얼-시어즈(공화) 후보(1160만달러)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지난 2분기 모금액도 1070만달러 대 430만 달러로 스펀베르거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한 분기에 1천만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펀베르거가 49%로 12% 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이는 작년 12월 10% 포인트 격차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가잘라 하스미 부지사 후보도 공화당의 존 리드 후보를 모금액과 지지율 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

공화당은 재선에 나선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만 모금액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미야레스 검찰총장 지지율(38%)은 민주당의 제이 존슨 후보(47%)에 뒤지고 있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풀변지매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5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버지니아주 수상



메릴랜드주 수상



조지아주 수상



National Top 1%
2018년 ~ 2024년까지
7년 연속 수상

Lender Licensed States (VA, MD, DC,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트럼프 “텍사스 등 하원 5명 증원”

중간선거 앞두고 신경전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하원 의석을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유리 혹은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특정 지지 성향 유권자가 많은 지역을 편중시켜 선거구를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하원에서 크게 패하는 바람에 8년만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기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 끌려다녔던 아픈 기억이



있다. 각종 정치적 의혹 사건이 의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재선 실패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지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면 공화당이 3-5석을 더 얻을 것인데, 텍사스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상원의회는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 연방하원

의회는 435석 중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 나머지 3석은 결원 상태다. 텍사스에 할당된 하원 의석은 모두 38석인데, 결원 1석을 제외하고 25대 12로 공화당이 앞선다.

텍사스 외에도 지난 대선 이후 공화당 우세 효과가 뚜렷해진 오하이오도 총 15석에서 3석을 추가할 수 있는 게리맨더링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선거구의 공화당 성향 유권자가 희석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격차가 미미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뇌물 혐의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 유력

워싱턴DC 8관구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트레온 화이트 전 의원의 당선

이 유력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25일까지 우편투표 개표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AP는 화이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는 작년 화이

트 전 의원이 정부유역업자로부터 15만6천달러를 받고 정부계약을 도모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 여파로 시의회는 지난 2월 화이트 전 의원을 제명했으나, 화이트 전 의원은 자신의 비리 때문에 치뤄진 보궐선거에 제출마해서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립경찰차 ‘포드 머스탱’ 첫 선

버지니아 주립경찰국이 포드 머스탱을 경찰차로 채택했다. 당국에서는 이미 1차 인도분 수납대를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5.0리터 V8 엔진을 채택했으며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있다. 이 차량은 시속 60마일에 이르는 시간이 4.5초 미만이며 최고 속도가 거의 170마일에 달한다. S650 머스탱 GT에는 480마력

“민주당 선거패배 원인은 대통령 배신 탓”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민주당이 아버지에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헌터 바이든의 각종 탈세와 총기 관련 혐의에 대해 사면령을 내려 민주당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페어팩스 출신 2명 메이저리그 지명 받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출신의 제임스 쿤-아이언스가 최근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의 지명을 받았다.

이밖에도 맥클린 고교를 졸업한 그리핀 스티그도 18번 라운드 542번째로 시애틀 마린스스의 지명을 받았다. 스티그는 버지니아 텍 야구부를 거쳐 이번에 프로입성에 성공했다. 2023년에는 버지니아 샌터빌 출신의 조니 파멜로와 비엔나 출신의 브라이스 엘드리지가 각각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바 있다.

5라운드 147번째 지명이었다. 쿤-아이언스는 사우스레이크 고교와 조지메이슨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4학년 시절 4할7푼리와 홈런 6개를 기록해 올해의 리그 선수상을 수상했다.

오피오이드 소송 합의금 VA 1640만달러

버지니아 정부가 밀란 등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를 제조 판매한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640만달러 배상을 받게 됐다.

당국에서는 배상금으로 중독자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버지니아의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중독자는 15만명을 헤아린다. 2022년 펜타닐 등 합성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버지니아에서만 1900여명에 달했다. 김옥재 기자

총 배상금은 7억2천만달러다. 지난달에는 퍼듀 파마 제약사와 지배주주를 상대로 74억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중 버지니아 할당분

은 1억380만달러다. 당국에서는 배상금으로 중독자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버지니아의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중독자는 15만명을 헤아린다. 2022년 펜타닐 등 합성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버지니아에서만 1900여명에 달했다. 김옥재 기자

연방의회 근처서 수상한 차량 발견

총과 다양한 무기 소지 USCP, 운전자 구금 조사

16일 오전 워싱턴DC 연방 의회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세워진 차량에 총과 활 등의 다양한 무기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의회경찰(USCP)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차량 지붕에 세발자전거가 묶인 차량을 목격하고 정지시켜 확인해 본 결과 차량 안에서 총을 비롯해 활과 화살, 그리고 빈 권총집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는 연방 의사당 북쪽 바리케이드 바깥 쪽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USCP는 운전자를 체포 구금하고 왜 무기를 싣은 차량을 끌고 의회 주변을 서성거렸는지 조사 중이다. 김성환 기자

현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운전자

필리핀, 남중국해 위기에 대만과 밀착 중

필리핀이 중국을 의식해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대만과 거리두기’ 태도를 버리고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격화하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필리핀에 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해 초 필리핀 국방부와 가까운 군사 분야 학자들은 대만 고위 장성들과 만난 비공개 포럼 자리에서 대만의 현안보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특히 양국은 해상 협력을 강화 중이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와 대만 해안 경비대는

최근 양국 경계인 바시 해협에서 공동 순찰을 실시했다.

지난달엔 대만 해군·해병대가 미국·필리핀·일본·한국 해병대 등이 필리핀에서 벌인 다국적 연합훈련을 참관했다.

외교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필리핀 정부 관계자가 대만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었다. 대만 국민의 필리핀 무비자 입국도 허용했다. 필리핀이 대만과 가까워지려는 배경엔 중국이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을 두고 갈등 중이다.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물품 보급선 등에 물대포를 쏘고 필리핀 해군이 맞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격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남중국해 내 암초에서 양국이 각각 자국 국기를 펼치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신경전도 벌인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서부 해안 해역에서 중국 선박 수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스파이 활동도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이 민감해 하는 대만과의 협력으로 협상력을 키울 생각이다.

최근 미군의 최신에 대함미사일 체계인 네메시스(NMESIS)가 필리핀에 배치됐다. 이승호 기자

워싱턴 날씨 (°F)

18일(금)	89-74	☁	21일(월)	89-73	☁
19일(토)	92-75	☀️	22일(화)	91-73	☁
20일(일)	89-73	☀️	23일(수)	89-75	☁

7월 17일(목) 88-7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사람이 머무는 곳이 집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집. 제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웃음이 모이고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피어날 집, 지금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비엔나 새집 지을 땅 \$87만불
H-Mart에서 가까운 곳 0.24 에이커 부영이 남향인집 워터베이스먼트 나오는 집

그로서리
스페이스마켓 할 자리 알렉산드리아, 2000sf

식당 자리
센터빌 햄버거식당 자리 1928 SF

알렉산드리아 스시식당 자리
3814 SF

매릴랜드 락빌 고가집 자리
6,195 SF

매릴랜드 락빌 스시, 이자카야 자리
4,675 SF

매매
VA 스틸링, 창고 2,000 SF, 드라이브인, \$660,000

창고 VA 캔들리, 21,000 SF, 주차 45대 나눠서 임대가능, \$ 5,600,000

MD 게이더스버그 교회자리 대략100석 주차 65대, \$ 1,500,000

MD 컬럼비아 사무실건물 7,700 SF. \$ 2,175,000

임대
VA 리즈버그 데이터센터주변 창고, 3500 SF, 로딩막 1개, 월\$6,500

MD 락빌 식당했던 빈자리, 3800 SF

Reston 오피스 빌딩
\$7,500,000

- 건물면적: 38,510 스퀘어피트
- 대지 면적: 약 7.5 에이커
- 멀레스 홀로드 인근, 웨스트엔 타운센터 및 멀레스 공항까지 차로 10분 이내
- 기업 분사 또는 프라이빗 스쿨로 적합
- 총 주차 공간: 138대 (3.7/1,000 SF 비율) - 직원용 주차 또는 야외 놀이 공간 조성 가능
- 건물 전체: 3층
- 구상: 사무실, 회의실, 개방형 공간 혼합
- 대형 카페테리아 및 휴게 공간, 피트니스 센터, 총 6개의 키친, 야외 피크닉 공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창 - 자연 채광과 숲 전망 제공, 개방형 이트리아를 위한 + 고속 엘리베이터
- 매매가 기준 평당 단가: \$194.75/SF (신축 비용 대비 낮은 가격)
- 경제성: 매시 임대 대비 비용 절감 효과 35% 이상
- 활용성: 직접 사용 가능
-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추가 수익 창출 가능
- 향후 성장 여부 확보

종교시설 매매
\$4,500,000

- 위치: 몽고메리 카운티, 매릴랜드
- 대지 면적: 약 30에이커
- 건물 면적: 총 약 18,423 SF (2개 동, 2단계 건축)
- 주차 공간: 96대 (장애인 지정 포함)
- 매각 조건: 현재 상태 "As-is" 매각

이 매물은 예배당, 커뮤니티 센터, 교육기관(학교), 문화 복합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넓은 확장성, 넉넉한 주차 공간, 상업용 주변, 다목적 공간 구조로 매우 실용적인 매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Woodbridge 상업용 부동산
\$3,950,000

- 용도: 데이케어 / 사립학교 건물 \$3,950,000 (평당 \$483.48)
- 연면적: 약 8,170 SF
- 종공연도: 2012년
- 층 수: 1층
- 총 주차 공간: 40대
- 장애인 접근성: 메인 레벨 출입 가능, 낮은 육상 거울 등 설치

주택 구입우 인테리외 디자인/공사 컨설팅 해드립니다

주택 빌딩 소개해 드립니다

인제, 어디서든 만나서 컨설팅상담하십시오

승경호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리얼티원그룹 슈나이더팀 대표
“내집장만” 부동산 소식지 발행인 | 건축면허 소지
JK Schumann Inc 국제기업컨설팅 대표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VA 페어팩스, 마사지업소 규제 강화

퇴폐행위 예방 목적
연말내 공청회 개최

버지니아의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인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마사지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지역 언론매체 WTOP에 따르면, 이 계획은 마사지 업소와 치료사 관리를 케이블 및 소비자 서비스부(CDSC)에서 카운티 보건부로 이관해 감독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수퍼바이저들은 회의에서 검토한 새로운 조항의 내용은 △삼진 문을 통한 통제된 진입 금지 △마사지 치료사는

업소내부 또는 시설 옆에 숙박 금지 △직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음주마약 행위 금지 △업소에서 음란하거나 성적 인 단어 사용 금지 △사업장에서 카운티 공무원에게 재정 기록 제공 △연간 허가 수수료 75달러에서 200달러로 증가 등이 골자다.

이 밖에 모든 마사지 치료 시설의 바닥, 천장, 벽을 비다공성 재료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10년 간 총 1961건의 마사지 업소 허가를 발급했고, 올해는 4월23일 기준 66건의 허가를 내주었다. 2016 회계연도 이후에는 단 2건의 허가 신청만 거부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2020년 3월에 기존 마사지 치료 조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2022년 2월에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 조항은 인신매매나 성매매 근절에도 한 몫을 할 것이라는 것이 수퍼바이저들의 일괄된 주장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제프 맥케이 수퍼바이저 회의 의장은 “이 제안은 업계의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는 올해 말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K-재즈 창작 밴드 '고니아'

19일(토) 2025 온스테이지
코리아 정기 공연

19일(토) 오후 7시,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위치한 캐피털 원 홀(The Vault at Capital One Hall in Tysons, VA)에서 (2025 온스테이지 코리아: 고니아(OnStage Korea 2025 Season: GONIA)) 공연을 개최한다.

‘고니아(GONIA)’는 한국의 전통 리듬과 현대 재즈를 결합한 ‘K-Jazz’ 장르를 선보이는 창작음악 밴드이다. 이들은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 한국의 전통 장단을 기반으로 장구를 핵심 악기로 활용하며, 재즈의 즉흥성과의 융합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언어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고니아의 음악은 한국적 리듬의 정체성을 선명히 드러내며, 그들만의 고유한 사운드를 창조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20년 발매된 앨범 <A Tension>은 한국대중 음악상 ‘베스트 크로스오버 앨범’ 부문 후보에 오르며 고니아의 음악성과 실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옹헤야’, ‘다스름’, ‘경성연가’, ‘아리랑’, ‘덩기덕’, ‘부채춤’을 춘다. ‘시르렁’, ‘동해바다’ 등 공연단의 주요 창작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약 60분간 자유롭고 감각적인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단은 7월 현재 캐나다 토론토와 세인트 야콥스, 뉴욕 링컨 센터를 포함한 북미투어 공연 중이며, 이번 워싱턴 DC 공연에는 김형택(리더/기타), 김민성(베이스), 김현정(장구), 이유정(코블/소리꾼) 포함 총 4인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지만 사전 예약(<https://www.eventbrite.com/e/onstage-korea-2025-gonia-performance-group-tickets-1478699894189?aff=oddtcreator>)이 필요하다. 김윤미 기자

몽고메리서 불법 파티하우스 열면 '벌금폭탄'

시의회, 최대 5000달러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불법 파티하우스를 열다 적발될 경우 벌금 폭탄을 맞게될 전망이다.

15일 몽고메리 의회는 불법 파티하우스 처벌 강화 법안 13-25호를 표결에 붙인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허가를 얻지 않고 파티를 개최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로 인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

사는 무조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곳곳에서 불법 주택 파티와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빚발치자 돈 루트케와 앤드류 프리드슨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프리드슨 의원은 그동안 파티하우스 성행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너무 약했다고 강조하며, 심지어는 주택을 렌트해 밤새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는 만큼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트케 의원은 “불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불법 파티하우스로 말미암아 기물 파손, 노상방뇨, 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안 통과에 환영을 표했다.

의회 통과를 마친 법안은 몽고메리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있다. 김성민 기자



“금홀히 여기는 자의 복” 워싱턴지역원로목사회(회장 이석해 목사) 7월 기도회가 지난 15일, 버지니아 센터빌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담임목사 오 건)에서 개최됐다. 오 건 목사는 이날 허박국 3장16-19절 말씀을 인용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다음달 원로목사회 예배는 8월12일(토) 11시,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소재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담임목사 이성자)에서 열린다. 김윤미 기자

몽고메리 경찰, 여름철 교통단속

캠페인 8주차, 음주운전 13명 체포
위반티켓 131장 발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이 여름철 특별 교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카운티 전역에서 지난 6월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교통 단속에서 음주운전과 형사 사건과 관련 14명을 체포하는 동시에 교통 위반 131건, 교통

경고 110건, 장비 수리 명령 11건, 음주 측정 8건,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티켓을 발부했다.

몽고메리 경찰이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통 단속을 실시한 지가 8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적발 건수는 음주운전 체포 110건, 교통정지 799건, 소환장 발부 1001건, 경고 1105건, 장비 수리 명령 77건, 알코올 관련 형사 소환장 23건, 호흡 검사 35건에 달한다. 김성민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와 함께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 - 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타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트럭 운전자 고소득 이전 옛말

관세 여파로 물동량 급감 일거리 확보에 출혈 경쟁 회사 폐업 실업자 신세도

화물 트럭 운전사의 연수입이 ‘여섯 자리(Six-figure)’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강화하면서 트럭킹 업체 및 운전을 담당하는 트럭 운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일부 한인 트럭킹 중소기업체는 주문 감소와 출혈 경쟁으로 문을 닫는가 하면, 트럭 운전자 등 직원들은 대체 일자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시애틀 지역 트럭킹 업체에서 운전 기사로 일하던 유태석(53)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유씨가 다니던 회사가 지난주 폐업을 결정해서다.

유씨는 “지난 몇 주 동안 일감이 없어서 하는 일 없이 계속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면서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고, 같이 일하던 트럭 운전자와 행정직 1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LA와 시애틀 항만 등에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물동량이 감소하자 트럭킹 업체는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트럭 운전자들은 일감이 줄어들어 수입이 급감했다.

가디나 소재 CNJ트럭킹 테드 김 대표는 “예전에는 트럭 운전사가 일주일에 평균 48시간 정도 일했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 중국 쪽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지금은 일주일 평균 35시간 정도만 일한다”면서 “전에는 잘될 때 한 달 평균 1만 달러를 벌던 트럭 운전자 수입이 요즘은 약 5000달러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쪽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우리 회사도 직원이 10명에서 현재 3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정책 여파로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트럭 운전자들이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 운송업체들이 밀집한 가디나 지역의 한 트럭 회사 주차장에서 운전자들이 휴식을 하고 있다.

한인 물류업계에 따르면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물동량 운송을 책임지는 트럭킹 업체들의 부침이 더 심해졌다.

현대해운USA의 한 관계자는 “트럭킹 업체는 물류의 중간 역할을 맡고 있

다”면서 “관세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주문이 줄다보니 한인 업체끼리 30~40% 할인이라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고, 출혈 경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 버티지 못하는 영세 업체는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헬스장 샤워실서 불법 촬영 60대 한인 남성 현행범 체포

조지아주 돌루스에 있는 헬스장의 샤워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회원을 불법촬영한 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돌루스 경찰서는 15일 한인 남성 이만근(63·사진)씨를 사생활보호법상 중범죄인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볼라드 선상에 위치한 LA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 중인 남성 회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휴대폰을 목격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의체포 받은 휴대폰에서 피해 남성의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뒤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구금돼 보석금 2만달러를 책정받았다.

장혜원 기자

뉴저지주 기습폭우로 2명 사망

뉴욕 일대 항공 1000편 취소 지하철 침수... 비상사태 선포

동부 뉴저지주 일대에 지난 14일 오후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길에 차량이 휩쓸려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다.

지난 4일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가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데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ABC 뉴스에 따르면 전날 밤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차량이 휩쓸리면서 차에 탑승 중이던 2명이 숨졌다.

구조대가 긴급히 출동했지만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탑승자들은 숨진 상태였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전날 밤 뉴저지주 일대에선 폭우가 쏟아지면서 플레인필드를 비롯해 뉴저지주 곳곳에서 도로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냈다.

15일 오전 현재 비는 그쳤지만 뉴저지주 일부 도로는 침수 피해로 여전히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州)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추가 사고 예방 및



14일 오후 뉴욕 맨해튼의 28번가 폭우로 침수된 뉴욕시 지하철 역사.

[로이테]

신속한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한편 뉴저지주와 인접한 뉴욕시도 밤새 내린 폭우로 지하철 일부 노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등 피해를 겪었다.

전날 오후 6시 51분부터 7시 51분까지 1시간 동안 뉴욕의 강우량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관측소 기준으로 53mm를 기록해, 허리케인 아이다가 닥쳤던 2021년 9월 1일(80mm)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강우 기록을 나타냈다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다.

하늘길도 영향을 받았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 자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존 F. 케네디, 라과디아, 뉴어크 등 뉴욕시 일대 3대 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편이 총 1000편 취소됐고,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도 1100여편에 달했다.

임창모 애국지사 유해 한국 봉환

홍사단 등서 독립운동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임창모(사진) 애국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된다. 대한인국민회(이사장 클라라 원) 등 항일 유공 단체들에 따르면 임글우드 묘지에 안장돼 있던 임 애국지사의 유해는 내달 11일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번 유해 봉환은 3년 전부터 준비됐다. 가족들의 양해와 정부의 최근 수년간의 추모 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보훈부에서도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94년 출생한 임 애국지사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으며, 1922년 일본과 중국을 거쳐 1926년 도미했다. 그는

도미 후 대한인국민회에서도 활동했다. 시카고와 LA에서 유학을 하며 미주 홍사단 임원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식품 도매업을 하며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 임 애국지사는 1967년 7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대한인국민회 측은 내달 10일 오후 임 애국지사 고별식과 추모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LA서 주방위군 절반 철수 해병대 병력은 계속 주둔

불법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의 폭력 사태 변질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LA에 배치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 중 절반이 철수한다.

국방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LA 일대 무질서가 진정됨에 따라 주 방위군 2000명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력은 다시 거주 정부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2000명의 주 방위군과 해병대 700명은 LA에 계속 주둔하며 연방 시설 및 요원 보호 임무를 이어간다.

일부 정치인은 “원래 산불 진압과 주내 불법 마약 단속 임무를 맡았던 병력이 LA 시위 대응에 투입됐다”며 병력 운용의 우선순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한길 기자

It's Okay, with Jesus!



트럼프 대통령 AI·전력 인프라에 920억 달러 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 기업의 9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계속해서 중국을 선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카네기멜런대에서 열린 '펜실베이니아 에너지·혁신 서밋'에 참석해 "우리는 펜실베이니아주 역사상 가장 큰 투자 패키지를 발표하기 위해 왔다"며 "오늘 20개 주요 기술·에너지 기업들이 펜실베이니아주에 92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신규 프로젝트에 360억 달러 이상,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에너지 인프라에 56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대규모 투자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데이터센터와 천연가스발전소에 250억 달러, 구글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신규 데이터센터 및 원자력·천연가스발전소 지원에 최소 200

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기업 퍼스트에너지는 전력망 확충·개선을 위해 150억 달러,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웨이브는 AI 특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60억 달러를 투자한다.

피츠버그는 '철강의 도시'로 불렸을 만큼 미 철강산업의 중심지였지만 1970~80년대 철강산업 후퇴와 함께 경제 쇠퇴를 겪으면서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도시가 됐다. 이후 로봇공학, 바이오, AI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AI·에너지 혁신 도시로 거듭나려 하는 중이다.

피츠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 9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을 소개한 것은 러스트벨트 재건의 정치적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비롯해 전국 단위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승부처다. 미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에너지 생산지이기도 하다.

그런 펜실베이니아주에 AI·에너지 분야의 막대한 투자 계획을 공개해 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피츠버그 카네기멜런대에서 열린 '펜실베이니아 에너지·혁신 서밋'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러스트벨트 우권자 표심을 붙들어 두려 한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지금 가장 뜨거운 국가이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공약은 미래가 펜실베이니아와 바로 이곳 피츠버그에서 설계되고 건설되며 만들어질 것임을 확신케 한다"고

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우리(미국)는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게 될 거라 말하지만 우리는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말을 기억해 두라. 중국은 매우 매우 뒤쳐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AI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 왔다. 1월 23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을 'AI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같은 날 미국의 AI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정부 규제 완화 및 규제 실행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오는 23일 한 AI 관련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AI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형구 기자

지법 판결에도 불체 단속 당분간 지속될 듯

LA지법, 무작위 단속 금지 명령 연방 정부, '판결 효력 중지' 항소

지난 6월부터 시작돼 남가주에서만 3000여 명을 연행한 연방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지속될 것인가.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두고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 다시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하급 법원이 때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연방법원 LA지법이 단속 요원들에게 내린 제한 명령에 불복, 또다시 항소했다. 단속 중단을 명령한 연방 지법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연방법원 자주 중부 지법의 마미 이



한 남성이 15일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에게 체포돼 호송되고 있다. [로이터]

우시-멘사 프림프 판사는 지난 11일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인종, 언어, 직업, 혹은 특정 장소(세차장, 농장, 버스 정류장 등)만을 근거로 사람을 불법 체류자로 의심하고 구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구금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비밀 전화 통화의 보장, 그리고 고문이나 위생 문제 등이 없는 수용 환경도 연방 당국에 명령했다.

ACLU 측 마크 로젠바움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거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세차장 노동자, 가정부, 거리 상인 등 선량한 지역 주민이 침대도 없고, 식사도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갇혀 변호사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이번 판결이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민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이지, 연방 판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관세 후폭풍... 체감 물가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며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상승세를 보이며 관세의 부담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 모두 시행될 경우 실효 관세율은 20.6%에 달하게 된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홀리 관세법 당시보다 높은 수치로, 191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4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권에 기본 10%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별 협상에 따라 최대 30%의 상호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높아진 관세는 최근 소비자

물가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5월(2.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장난감(1.8%), 가전제품(1.9%), 가정용 가구(1%) 등 관세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소비 현장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산 토마토다. 상무부는 지난 14일 멕시코산 토마토에 대해 17.09%의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약 70%가 멕시코산 토마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계는 소매가격이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조원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락소) 옆
웨이마트(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소 물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미국 희토류 와신상담...최근 광산기업 국영화

중국에 설욕 나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미국이 굴기에 나섰다. 미국방부가 직접 자국 희토류 업체에 투자를 단행해 대주주로 올라서고, 애플은 바로 이 업체와 거래를 하며 미국 전체가 희토류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플이 희토류 채굴·가공 업체인 MP머티리얼즈와 '희토류 자석'(rare-earth magnets·희토류로 제조한 영구 자석) 납품 계약을 맺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5일 보도했다.

애플에 희토류자석을 납품하게 된 MP머티리얼즈는 사실상 국영 기업이냐 마찮가지다. 최근 미국방부가 4억 달러어치의 우선주를 매입해 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MP머티리얼즈는 미국에서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희토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기세 좋게 미·중 무역 전쟁에 들어갔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가자 발목이 잡히며 승기를 놓쳤다. 세계 희토류 시장의 90%를 장악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자석 구매자에게 군사적 용도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포드의 시카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이 일주일 동안 폐쇄되는 일도 벌어졌다.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 무기 역시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은 결국 예고했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에탄등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철회하는 대가였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중국 수출도 허가했다.

미국에 희토류가 없는 건 아니다. 네오디뮴 등 17가지의 희토류 자원이 지하



중국 내몽골 지역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에 묻혀있고 한 때 전세계적 희토류 채굴지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채굴과 가공 작업에 드는 비용면에서 중국에 상대가 되지 않으면서 2000년대 들어 미국의 희토류 관련 기업들은 하나둘씩 경쟁에 밀려 사라졌다.

미국 희토류 굴기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MP머티리얼즈의 성장은 마치 개발

도상국 기업의 성장사와 같은 인상마저 준다. 헤지펀드 회사 출신의 제임스 리틴스키는 2017년 버려져있던 마운틴패스 광산을 인수해 희토류 사업에 뛰어 들었다. 직원 8명의 임금도 지급하기 버거웠던 이 회사는 중국 희토류 회사의 투자를 받아서야 희토류 자석 제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자체 처리시설

을 만들고 미 국방부의 1억 달러 보조금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그러나 2022년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희토류 국제 가격이 폭락하고, 서방권 광산업체들이 몰락하면서 MP머티리얼즈 역시 휘청였다. MP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최고치의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다.

그 와중에도 MP머티리얼즈는 희토류 채굴과 가공에서 벗어나 희토류 자석 제조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전세계에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생산설비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중국업체에서 일한 전문가와 중국 생산 장비를 일부러 배제했다고 한다. 중국의 견제를 우려해서다.

이런 노력 끝에 MP머티리얼즈는 현재 텍사스의 희토류 자석 생산 용량을 이전의 3배로 늘리고, 추가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희토류 재활용 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유튜브로 시작한 참정당... '국가주권' 주장

47세 대표, 유튜브서 창당과정 공개

오는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인 퍼스트(우선)'를 전면에 내세운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급격히 기세를 올리고 있다. 창당까지 5년 만에 이번 선거에서 1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홍보 문구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축소, 토지구매 제한 등 외국인 배제를 내세워 기존 자민당 텃밭을 공략하면서다.

참정당의 약진이 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도쿄도의 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3석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선 전국 45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자를 냈다. 비례대표 후보도 10명을 냈는데, 선거자금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7900여 명이 참여해 1억8337만 엔(약 17억원)을 모은 상태다. 참정당에는 현재 중의원 3명, 참의원 1명, 약 140명의 지역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소속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46.5세로 남성(66.4%) 비율이 높다.

참정당을 세운 가미야 쇼헤이(神谷宗幣·47·사진) 대표는 후쿠이현 출신으로 간사이대 문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가업을 이었지만 파산했



13일 일본 도쿄에서 우익 성향의 참정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며 외국인 규제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AP·연합뉴스]

고, 고교 강사로도 일했다. 그러던 그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2007년의 일이다. 오사카부 시타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에 당선되면서다. 2012년에는 자민당에 입당해 중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이듬해부터 인터넷 활동을 하며 지명도를 올렸고, 2019년 유튜브 채널 '정당 DIY'를 개설해 창당 과정을 방송을 통해 알리며 2020년 4월 창당했다. 2022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

후보로 당선한 그는 당 대표에 재선하며 활동 범위를 늘리고 있다. 참정당의 약진을 바라보는 일본 내 시선은 복잡하다. 외국인 배제하겠다는 우

익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참정당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신(新)일본헌법'이 대표적이다. 제2장 국가편에서 "(국민이 아닌)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참정당의 개헌안에는 '평등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도 빠져 있다. 참정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 자유화'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주장했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참정당은 이같은 '음모론'에 기반해 "막대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세력이 코로나 공포를 과잉으로 부추기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내놓기도 했다.

김경주 도카이대 국제학과 교수는 참정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라며 "자민당에 불만을 갖는 젊은이들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감제, 외국인 배척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치야마 유(内山融)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이날 일본 주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참정당의 대두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만일 참정당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존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현제 기자

젠슨 황 "SK하이닉스·삼성전자 미래 유망"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미래가 매우 유망한 회사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만다린 오리엔탈 첸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고대역폭메모리(HBM), 그래픽 데이터레이터(GDDR), 저전력 데이터레이터(LPDDR)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메모리 3사 모두 엔비디아의 훌륭한 파트너인 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막한 중국국제공급망촉진 박람회(CISCE)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찾은 황 CEO는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자리를 마련했다. 전 세계 매출 30여 곳 대상 소규모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 중앙일보는 엔비디아의 초청을 받아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1시간50분가량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전 개막식 행사에서 중국 전통 의상 '당복(唐裝)'을 입고 연설 일부를 중국어로 해 화제를 모았던 황 CEO는 오후 기자회견 장소도 중국식 가옥 구조의 호텔을 택했다.

전날 황 CEO는 중국 관영매체 중국중앙TV(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H20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직접 전했다. H20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반도체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AI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하면서 수출을 금지했다.

황 CEO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H20 재고를 완전히 폐기한 건 아니다"며 "H20은 엔비디아 제품 중 최고 성능은 아니지만 메모리 대역폭은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다.

황 CEO는 중국 방문 전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기자의 '워싱턴은 당신의 중국 방문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4조 달러 시장 가치 달성을 축하하며 '좋은 여행이 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황 CEO는 올해만 3번째 중국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을 방문하며 화제를 모았다. 4월에는 다시 베이징을 찾아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별도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시장 재진출에 방점이 찍혔다. 14일 베이징 내 모처에서 레이첼 샤오미 CEO와 비공식 일정으로 만났고, 15일에는 런훙빈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면담했다.

베이징=이가람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본지에서는 30, 50, 60대 이상 환자를 위한 척추사랑+에서 10만 가리 센터빌/첼러리/양자클리닉+에서 10만 가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JULY 17th - JULY 24th, 2025



ORION

Turtle Chips 2 Mix
오리온 꼬북칩
콘스프맛 &
초코츄러스맛

LIMIT 2 BOX/
7 SWEET CORN +
7 CHOCO CHURROS/
0.88 OZ X 14 EA/BOX



\$8.99

14팩

백제
SINCE 1978

BAEKJE
Himokawa Udon
백제 히모카와
우동 **LIMIT 2 BOX/1.91 LB**



\$7.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강선우 자진사퇴를” 용산 내부서 급부상

이상호 “일부 후보자 여론 안 좋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강·이진숙 등 일부 낙마 불가피론 여성단체 “강, 여가부 장관 부적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안팎의 임명 불가론이 확산되면서 대통령실의 기류도 일부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에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

다. 보고만 받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가 끝나 봐야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했다. ‘걱정되는 후보자가 있나’란 질문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후보자 전원 임명 기조’라고 전한 한 보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야 다 잘됐으면 좋겠다 입장이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특별한 기조를 밀고 나가고 있지 않다”고 반유포했다. 우 수석은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만 했었다.

대통령실은 진보 진영 내부의 임명 불가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두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보좌관 갑질 논란은 국회의원이

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밝혔고,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이라는 이유였다.

양대 여성단체도 “강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소한의 존중과 인권마저 외면한 강 후보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1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고 반대 성명을 냈다. 이날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전직 회장단은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는 성명을 냈다.

대통령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쪽은 강 후보자다. 당초 “단순 의혹 제기 수준”(대통령실 관계자)이라던 기류가 변천한 데엔 지난 14일 관련 물증이 공

개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강 후보자는 14일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집안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당일 저녁 청문회 도중 쓰레기 처리를 지시한 강 후보자의 문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해명이 언론 보도로 계속 뒤집히고 있다”며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하면 됐는데, (거짓 해명 논란에) 내부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맞아 보인다”면서도 “장관직 수행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와중에 갑질 의혹은 이날도 추가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3년 7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던 강 후보자가 서울 소재 A대형병원의 보호자 면회 제한 방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강 후보자

가족이 입원한 ‘간호간병 병동’은 자정 전 귀가를 전제로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 음성’ 결과를 받은 보호자 1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강 후보자는 “PCR 결과를 받은 뒤 보호자로 등록하고 오시라”며 출입을 막은 간호사 등에게 “나 국회의원이야”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목격자인 A병원 관계자는 “일부 간호사는 울음을 터뜨렸다”며 “결국 PCR 대신 간단한 신속항원검사만 받고 보호자 출입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것이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 지명 철회는 부담스럽다”며 “낙마 방침이 서면 자진 사퇴해 줘야 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정성호 “검찰개혁 신속히… 조국 가족 양형 과해”

〈법무장관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검찰개혁 구체적 시점은 언급 안해 “여당 법안 그대로 통과 안 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적절치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권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국민께 부작용은 없어야 하고,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언제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 시점은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

구) 시행령에 대해서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을 두고 “형사소송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다”고 따지자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4법은 김용민·민형배 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후보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냐”는 박은정 의원의 질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면 수사청을 독립하는 의미가 거의 사라진

다”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환경에 불만을 표시하며 특별검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내란정당 해산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이성운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도 위한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압박하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모독이다”라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사 거부한 윤, 부정선거 선동 인사 만나려다 특검 저지로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조사는 거부한 채 16일 옥중에서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탄 교수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

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현재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있다. 탄 교수는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하기

로 돼 있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그러자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발

언했다. 지난 14일 입국 후 탄 교수는 모교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접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를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접견이 성사됐다.

그러나 특검팀이 전날 오후 4시13분부터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

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내려 접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11, 14일 특검팀의 두 차례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하고, 14~15일 강제인치를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은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강제 인치는 심사 종료 시까지 중단됐다.

김성진 기자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p>1. 웃손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싱글 \$1,450,000</p> <p>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p>	<p>5. 애넌데일 싱글 \$719,000</p> <p>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 3, 카포치, 세지, 드라이브웨이 44우차, 화송 2, 31 2sqft, 0.46acre, SOLD 45.15, 통치세 보다 50%이상 절감, 리모델링/후자, 가차늘음, 397/236/495/95/66</p>	<p>10. 센터빌 벽돌타운 \$639,000</p> <p>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p> <p>Coming Soon</p>
<p>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p> <p>방 4, 화3.5, 차고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p>	<p>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p> <p>방 3, 화2.5, 차고1, 좋은학군/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p> <p>Coming Soon</p>	<p>11. 게인스빌 콘도 \$425,000</p> <p>방 3, 화1.5, 차고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p> <p>Under Contract</p>
<p>3.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470,000</p> <p>방1, 화1, 1/2층 오픈 loft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p>	<p>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p> <p>2014년, 방 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p> <p>Coming Soon</p>	<p>12. 맥클린 콘도 1.\$300,000/2.\$409,000</p> <p>1. 방1, 화1, 762sqft 2.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p>
<p>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하이 마켓 럭셔리 싱글 \$1,719,000</p> <p>1메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아외 리프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외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p>	<p>8. 애쉬번 타운 \$670,000</p> <p>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달러스 공항</p> <p>Coming Soon</p>	<p>13. 찬들리 새타운 렌트 \$3,600</p> <p>방 3, 화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p> <p>Rented</p>
<p>9. 게이신빌 골프 싱글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매니라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SOLD</p>	<p>14. 매매/리스</p> <p>*센터빌 중심 상업용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용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월</p>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시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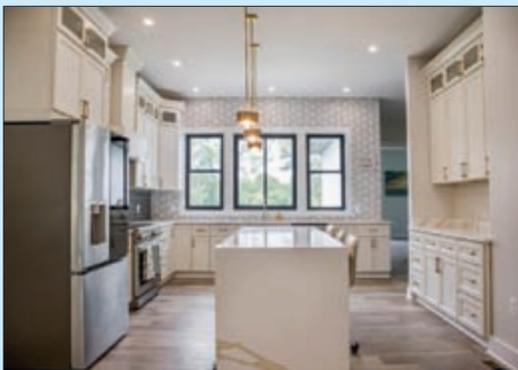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이진숙 “내가 수주, 1저자 당연” 이공계 교수들 “우린 바보냐”

(교육장관 후보자)



이진숙 논문표절 부인, 사퇴 거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앞쪽 서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준비한 이 후보자의 지난 논문들이다. 이 후보자는 다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 지명 철회 전에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다수의 교수들이 지지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이진숙 논문표절 부인, 학계 반박
이 “논문 표절률 겨우 10% 넘어”
학계선 “연구노트도 안써, 궤변”
이, 두 딸 유학 7억원 송금내역 제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 자료를 보고 있다.

“언론 보도는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을 해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 수장으로 지명된 후 2주간 제기된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 등을 들어 오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문을 검증했던 교수단체와 학계에선 “궤변”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참여연대 등은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딸은 2006~2011년 미국의 기숙형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자녀는 중3 때 조기유학을 떠나 의무교육 기간 부모 동행 없는 유학을 금지한 당시 법 규정을 어겼다.

논문 관련 의혹엔 적극 해명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의 관행을 들어 “대부분 학생이 학위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이다. (제가) 제1 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등이 사용한 표절 판별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문제 삼으면서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마다 유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가가 제외하면서 정확히 돌려야 유사율(표절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언론에서 2007년 이전 논문이 나왔길래 저도 돌려봤다.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표절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학계는 재반박했다. 건축공학 전공인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중앙일보에 “연구비를 수주한 게 교수라도 실제 연구를 수행한 게 제자라면 교신저자, 지도교수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지 적어도 제1 저자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연구비·아이디어를 제공했다더라도 연구 수행에 보다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면 제1 저자로 보기 어렵단 얘기다.

특히 ‘연구 중 학생들이 연구노트를 쓰고 자신은 수첩에 기록했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에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 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연구노트를 안 썼다는 말은 제1 저자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마치 요리를 해야 하는데 주방에는 안 있고 카운터에만 있었던 말”이라고 꼬집었다. 검증단에서 활동한 김경환 중부대 교수도 “카피킬러만으로 검증한 게 아니라 문제 논문 16개를 모두 읽었다. 수작업으로 하면 (표절률) 더 높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민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공계 교수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왔다.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학생 연구시키고 제1 저자로 만들고 난 교신저자를 했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는 바보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회에 두 자녀의 유학 비용 송금 내역을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총 69만 달러를 송금했다. 최민지·이후연·이보람 기자

‘김정일 조문’ 방북 시도했던 김영훈 “북한은 주적 아니다”

(노동장관 후보자)

“천안함은 북한 소행 정부발표 신뢰”
노란봉투법·주 4.5일제 추진 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노란봉투법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를 대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

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신뢰를 쌓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장에서 주적(主敵)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정동영)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안규백)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물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연평해전’과 관련해선 “국무위원이 되면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김민중 기자

건진의 불당과 연결된 ‘비밀방’…거실엔 일본神 아마테라스 굿당

15일 오전 8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법당으로 들어닥쳤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법당을 찾은 지 7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이 재차 법당 압수수색에 나선 건 검찰 압수수색 당시 법당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비밀의 방’ 2곳을 빠

뜨렸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 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

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진법사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보인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

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현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핵심적인 압수수색 대상으로 염두에 둔 장소는 지상 2층 불당의 부처상 뒷편 공간과 연면적이 54㎡(약 16평)에 이르는 지하 1층 차고

옆 별도의 공간이다.

전씨가 귀중품이나 비밀 자료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검은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이 2층 불당과 연결된 비밀 공간과 지하 공간의 물건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재압수수색을 계획했다고 한다. 손성배·양수민·이찬규 기자

Care People Home Health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8/11 ~ 8/15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er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타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IANA AIRLINES AIR CHINA AIR CANAD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등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08/02~08/15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390+항공
08/05~08/15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390+항공
08/08~08/13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08/14~08/20	알래스카 일주 마강	6박 7일	\$2990(항공포함)
08/21~08/31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마강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08/29~0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5	알래스카 크루즈 마강	7박 8일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09/09~09/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6~09/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지중해 크루즈	9박 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10/21~10/29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22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 11일	\$35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03~11/14	일본 크루즈	11박 12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11/11~11/24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3박 14일	\$3980+항공
11/14~11/24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6~11/30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690+항공
1/21~2/2/26	신비의 인도&네팔	12박 13일	\$4590+항공
01/27~02/06	우유니사막/피타고니아	10박 11일	\$780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11~02/22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02/19~03/06	아프리카 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10박11일 | \$2990+항공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09/16~09/26 + 오사카
3박 4일 | 9/27~9/30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단풍특선 4차 10/14~10/24 + 동경
3박 4일 | 10/25~10/28 | 실속 \$1149+항공, 디럭스 \$1799+항공

5차 10/21~10/31 + 일본크루즈
11박 12일 | 11/3~11/14 | 인사이드 \$2990+항공부터~/오션뷰 발코니요금문의

동경&오사카 11/01~11/06
5박 6일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6차 10/28~11/07 + 동경&오사카
5박 6일 | 11/8~11/13 | 실속 \$18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일본 연합 투어 *2인 이상 출발보장

동경 3박 4일 | \$1149+항공

오사카 3박 4일 | \$1149+항공

동경&오사카 5박 6일 | \$1899+항공

동경&오사카 11/01~11/06 단풍특선
5박 6일 | \$1899+항공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
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
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인천/부여/군산/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
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
속초/김포/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그랜드 조선 부산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롯데호텔 제주

★ 특급호텔의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호텔에 일찍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Together in Korea 실속 패키지 [매주 2인 이상 출발보장] 서울 사무소 직영 운영

내륙 6박 7일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동해안 4박 5일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제주+동해 6박 7일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서남권 3박 4일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제주도 2박 3일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전국일주 9박 10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동남아 연합 투어

방콕/파타야 3박 5일 \$490+항공	다낭 3박 5일 \$450+항공	대만 3박 4일 \$690+항공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690+항공	나트랑/달랏 3박 5일 \$450+항공	싱가폴 3박 5일 \$850+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여 \$94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20% off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가천대길병원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스키야콘티넨털 특식(음식)

7월 28일 대형버스 확정

2박 3일 \$650

미등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레츠버그/뉴욕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성구 노아 +아미쉬마케팅 당일 \$199

7/22, 9/9, 9/30, 10/16, 10/29, 11/13, 12/4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나이아가라폭포 옆 Hotel 숙박

참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 투어 미서부 일주 8박 9일 \$1540+항공

서부주요 도시와 3대캐년까지 일주 여행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옐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5박 6일 \$130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배임죄 완화' 당근 주고 '더 센 상법' 무더기 추진

2차 개정엔 집중투표제 의무화
3차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재계 숙원 '배임죄 전면삭제' 검토
여권, 기업에 당근·채찍 양면전략

여권이 경쟁적으로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의 1차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6일까지 총 6건의 새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이 환호할 만한 내용의 '더 독한' 개정안이 대부분이지만, 배임죄 완화 등 재계의 요구를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과 풀어주기 가 동시에 담긴 '화전

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에 대응하게 된 셈이다. 재계가 당장 위협으로 느끼는 건 1차 개정 때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가 처리를 미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지도부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2차 개정의 핵심"(진성준 정책위의장)이라고 한 것들이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월 4일 전에 이 둘을 처리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들을 1차 개정엔 담으려 했다. 하지만 여당의 '개미 투심(投心)' 독식을 우려한 국민의힘이 이전보다 상법 개정엔 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민주당도 한 발짝 물러

섰고, 1차 개정엔 '새 정부 1호 여야 합의 처리'로 매듭지어졌다. 단계적 법안 처리는 주식시장에 주기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켈리"가 쉽게 끝나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상법 개정을 굳이 일회성으로 밀어붙여 단칼에 끝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가을 또 한 번의 개정(3차)을 준비하고 있다. 9월 국회에선 한 걸음 더 들어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상승하고, 소액주주는 그만큼 이익을 본다.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정부와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자사주 소각) 제안

이 7·8월에 드러나면 이를 취합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정리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16일 현재 김남근·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6개월~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별개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더 많은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문제는 소액주주를 편드는 개정안 내용들이 기업엔 경영권·재산권을 옥죄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1차 개정 때의 여야 합의 모양새가 또 성사되리란 보장도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차 개정 단계에서 재계의 숙원인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를 포함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 최대 정책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인 김태년 의원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 사유를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 2건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상법 개정엔 있어 민주당과 원팀으로 움직여 온 조국혁신당이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선 건 변수다. 차규근 의원이 "배임죄의 남용은 억제돼야 하지만, 배임죄 자체의 폐기는 또 다른 편향을 낳을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명확히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자당 의원 10인과 함께 15일 발의했다.

심세롬 기자

비화폰 삭제 관여 의혹...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압수수색

특검,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윤·김용현·김용대 회동 꼬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원격 삭제와 같은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 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조 전 원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지난 11일 'VIP 격노설'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 전 원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이들이 지난해 9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한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3인 회동' 자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 3인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일반이적죄 공모 근거로 이 3인 회동을 들었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고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보낸 것으로 지목된 기간 중의 일이다. 정유진·나운재·김보름 기자

윤희숙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거취 밝혀야" 직격탄

'윤어게인' 행사참여 핵심인사 겨냥
"사과는커녕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
송 "전혀 공감 안돼" 수용불가 밝혀
장 "윤 오발탄, 강선우·이진숙 문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 혁신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면서 1차 인적 쇄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과거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당 현역 의원 4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거취 정리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 중진, 잠재 당권 주자 등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록 집은 윤 위원장의 초강수에 충격 파가 물려오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있는 분들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사과를커녕 과거와의 단절 노력을 부정하고 비난했다"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절하라는 당원의 열망을 배신, 광화문광장 집회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

어들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한 '윤어게인(YOON Again)' 관련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행사에 송언석 위원장과 정점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당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솜통을 조이는 극악한 해당 행위" "해택을 가장 많이 받은 중진이란 분들이 혁신을 면피 수단으로 삼고 선동한다"는 등의 자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4인을 지목한 그는 "(쇄신 대상 지목은)

계속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깎아내리면 반혁신이자 쇄신 0순위"라고 강조했다. 향후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할 것이냐는 물음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것이다. 당이 죽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것 하나도 없는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이 1차 쇄신 대상으로 4인을 지목한 걸 두고 "혁신위 무용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중량감 있는 4인을 직격해 위기감을 환기시키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지목된 4인은 탄핵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관저 집회에 참석하는 등 강성 여론 편에 섰다"며 "특히 혁신위의 사과 요구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탄핵 반대를 왜 사과하니"(11일 나경원),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11일 장동혁)며 윤 위원장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중앙일보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

은 다 죽는 길"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혁신안은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내비쳤다. "광장 세력을 당 안방에 끌어들였다"는 윤 위원장의 비판에는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며 "윤희숙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문혀"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혁신위원회에 부르면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금지 서약서를 20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제출하라"는 요구도 했다. 그는 "3년 전 친윤계가 의사 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계는 '언더 73'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국희·장서윤 기자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전문의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 Ace Acupuncture
571-438-4644
-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오전 11시 ~ 오후 10시
수요일	정기 휴무 / CLOSED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세금 2조 손실 용인경전철, 대법 “지자체장이 배상”

(이정문 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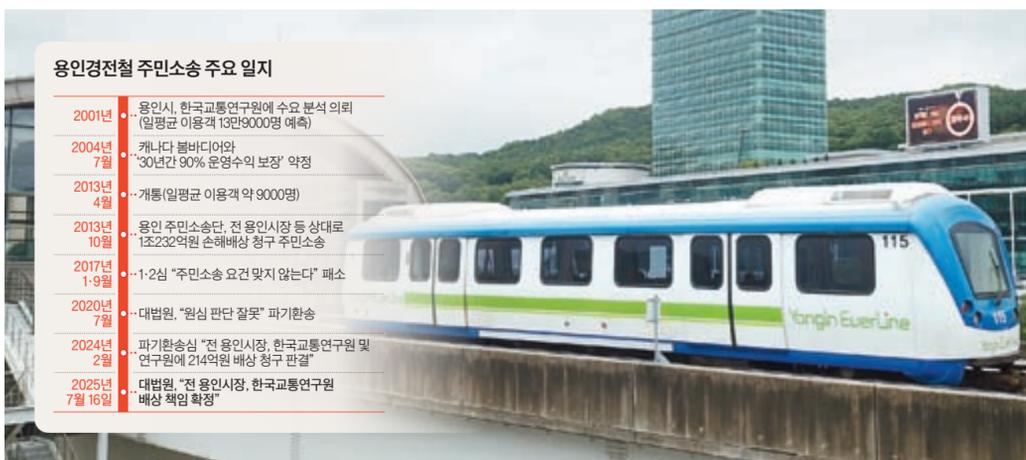
민자사업 세금 낭비 책임 첫 인정
214억 배상 판결, 주민소송 12년만
주민 “선거용 공약·사업에 경고장”

잘못된 수요예측과 수입 보장 약정으로 30년간 세금 약 2조원 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16일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패로 예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선출직 단체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확정판결이다. 12년 소송 끝에 승소한 용인시 주민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환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이 2013년 10월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2002~2006년)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3명에게 214억원을, 이 중 42억원은 교통연구원에 청구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연구원 3명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주요 일지

- 2001년 · 용인시,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 분석 의뢰 (일평균 이용객 13만9000명 예측)
- 2004년 7월 · 캐나다 볼바디아와 “30년간 90% 운영수익 보장” 약정
- 2013년 4월 · 개통(일평균 이용객 약 9000명)
- 2013년 10월 · 용인 주민소송단, 전 용인시장 등 상대로 1조222억원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 2017년 1·9월 · “1·2심 ‘주민소송 요건 맞지 않는다’ 패소
- 2020년 7월 ·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파기환송
- 2024년 2월 · 파기환송심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에 214억원 배상 청구 판결”
- 2025년 7월 16일 · 대법원,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확정”

대법원이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린 용인경전철 추진 당시 시장과 수요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세금 낭비 책임을 물린 첫 사례다. 시장·용인대역을 지나는 경전철 너머로 용인시청 청사가 보인다.

는 부분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인지 원심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2004년 용인시는 캐나다 볼바디아 컨소시엄과 경전철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30년간 수입이 수요예측치의 90%에 미달하면 차액을 용인시가 메꿔준다는 ‘최소수입보장(MRG)’ 약정을 포함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1일 이용객이 13만9000명이라 예측치를 기준으로 해서다. 이후 1조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공했다. 하지만 2013년 개통 첫 해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이 9000명으로 예측치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막대한 적자가 났다. MRG 등을 놓고 볼바디아와의 법적 분쟁으로 개통이 3년가량 지연됐고,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원(이자 포함 850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2043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 부담이 예상되자, 용인시 주민들은 당시 용인시장들과 교통연구원 등이 세금 낭비에 따른 1조232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 지자체에

재정 손해가 발생할 때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2017년 1·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거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주민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과도한 수요예측에 근거해 사업이 시행됐다면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한 것이다.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최소수입보장 협약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교통연구

원과 소속 연구원들은 비(非)합리적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과실을 저질렀다”고 했다.

12년간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국내 최초로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끌어낸 최초의 사례이자 용인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눈먼 돈’이란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면책되지 않고,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강력하고도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앞서 용인경전철 사업 공사권을 동생 회사에 수주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사 후 수뢰)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국회의원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준영 기자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팔았다, 김윤덕 토지 다운계약 의혹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세 필지 매수자는 두 배 값에 거래
김측 “땅 판 뒤 도로 생겨 값 올라”

16일 오전 찾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부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15분 정도 걸으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서위리 토지가 보였다.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땅은 잡초가 무성했고 일부는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16년 이 땅을 3.3㎡당 평균 34만원에 팔았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019년 호가

가 3.3㎡당 120만~130만원까지 올랐던 곳”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일부 필지를 공시지가보다 싸게 파는 등 상속받은 땅의 값을 낮춰(다운계약)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는 1998년 7월 서위리 일대 토지 1140㎡(약 345평)를 상속받았다. 2016년 9월 해당 토지를 865㎡(약 262평), 119㎡(약 36평), 156㎡(약 47평)로 분할해 팔았다.

865㎡는 당시 공시지가(6432만원)의 1.4배인 9106만원에 팔았다. 156㎡는 1642만원에, 119㎡는 1252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이 두 필지는 해당 연도에 분할돼 다음 해부터 공시지가가 책정됐는데 각각 2017년 공시지가보다 10%, 13% 싼 가격이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다. 거래가 드문 토지는 시세의 30~40% 선에서 공시지가가 책정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 거래는 공시지가의 2~4배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며 “공시지가 수준에 팔았다는 건 시세의 절반 이하라는 건데 다운계약의 심된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을 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대표적인 탈세 방법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판 땅은 이후 두 배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156㎡ 필지를 산 매수자는 3년 후인 2019년 3월 51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공시지가(1957만원)의 2.6배 수준으로, 2년 새 공시가격은 140만

원(7.7%) 올랐지만 실제 거래 가격은 3458만원(210%) 상승했다. 119㎡를 산 매수자도 5년 후인 2021년 3월 당시 공시지가(1671만원)의 1.8배 수준인 2900만원에 팔았다. 4년 새 공시지가는 234만원(16%) 올랐지만, 실거래가는 1648만원(130%) 뛰었다.

김 후보자 측은 “156㎡·119㎡의 2016년 공시지가가 없는 만큼 세 필지 모두 865㎡의 2016년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1.4배 수준이라 다운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전후로 폭 6m의 포장도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현주·김기정 기자

중부 폭우, 10m 옹벽 무너져 차량 매몰... 1명 사망 추정

이른 폭우에 자취를 감췄던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16일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17일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

히 경기 남부와 충청권은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7시쯤 경기도 오산시 가장 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1대를 덮쳤다. 소방당국이 굴착기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생존자를 찾지 못한 상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매몰된 상태라 흙더미를 완전히 걷어내야 알 수

있으나 현재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의 수월 방향 차로엔 지름 수십cm의 포트홀(도로 파임)이 생겨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중부 지방에서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로 보령 129.5mm, 태

안 78mm, 안산 7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40mm의 비가 내린 서울에선 오후 5시부터 청계천, 안양천 등 29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선 공동주택이 침수됐고, 충남에선 9시까지 폭우로 인한 119 신고가 총 27건 집계됐다.

정은혜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윤 몰락은 특수부 경험 탓... 김건희 수사, 검찰 최대 업보”

검찰 출신 김웅 전 의원 인터뷰
윤, 특수부 구태의 대표적 인물
공천권 쥐고 권력 주구만 키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며 '윤석열 사단'과 대척점에서 있었던 인사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0일 재구속되면서 정치적 파장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웅(55)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1년 전에 예견했던 보수 진영 정치인이다. 그는 2023년 12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보내려 하자 “우리 당의 문제는 ‘윤산 2중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면 총선에서 참패해 의원 숫자가 부족해져 내년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경고가 현실이 된 지금 그는 몰락한 윤 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입을 거침 없었다.

“윤 정부 몰락은 ‘검사 정치 실패’인가. 동의하지 않는다. 와이프(김건희씨)가 수상한 사람에게 버젓이 명품 핸드백(디올백)을 받는데 세상에 어떤 검사가 수사를 무마시키고 난리를 치겠나. 검사라는 특정 직역의 실재로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규정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잘못과 책임이 경감된다.”
“국정 운영이 검찰식이란 지적이 많다. “그건 특수부 검사의 문제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고 만들어진 직업이다. 그런

데 특수부 검사는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옛 대검 중수부에서 이어진 특수부의 구태를 완전히 체화한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이다.”

“지난 3년간 요직을 검찰 출신이 꿰찼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란 웅덩이에 서만 자랐다. 웅덩이에선 피라미가 힘이 제일 세고 빠르니까 바다에 나가서도 자기 눈엔 돌고래보다 피라미만 보인다. 특수부의 착각 중 하나는 수사하면 자신이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법무부를 수사한 검사가 법무부 장관, 금융계를 수사한 검사가 금융감독원장, 대검 사무국장

이 대통령실 운영 담당자가 됐다.”

“인사 문제의 대표적 사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다. 친윤 1호,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1호였다.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내가 ‘북한 김주에(김정은 위원장의 딸) 등극을 따라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한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의 한동훈 발탁은 마치 월드컵에 자기가 속한 조기 추구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발동도 특수부 검사 경험에 따른 결과로 해석했다. “야당이 국정정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상대

를 힘으로 없애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 극약 처방인 계엄을 들고나온 것 같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정치권에 가 보니 여의도가 검찰보다 줄세우기와 상명하복 문화가 더 심했다. 한눈(실세)한테만 가서 고개 숙이고 말 잘 들으면 공천해 주니까. 윤 전 대통령이 공천권과 인사권을 쥐면서 바른 소리 하고 소신 있는 사람은 다 날리고 ‘권력의 주구(走狗)’만 키웠다. 더는 사나운 늑대가 필요 없어졌다.”

“당장 약력이 됐던 것이냐.

“그만큼 정치에 미숙했다는 증거다.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윤 전 대통령보다 당 장악력이 약했잖나. 그런데도 3김은 100 중에서 70 정도만 쫓기고 30은 여지를 남겨두는 정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미숙함을 알면서도 국민의힘 중진 중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검찰이 권력에 취약해졌다.

“대통령 힘의 대부분이 인사권에서 나온다. 그래도 과거엔 능력을 보며 적절히 나눴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말 잘 듣는 검사만 특채하면서 물이 깨졌다. 당시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사단’이었다. 그걸 본 검사들은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잭빠게 움직여 주면 보상이 가장 크다는 것을 눈치챘다.”

“윤 정부에서 검찰 수사는 공정했다.

“윤 정부 시절에 검찰이 큰일 났구나 생각한 계기가 두 가지다. 첫째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기소다. 검찰이 불분율을 깨고 부모에 이어 딸까지 기소했다. 정치보복 수사를 자인하는 상징적 기소였다. 둘째는 김건희씨 출장 조사다.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윤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것인가.

“검찰이 유독 김건희씨 앞에서 약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부당한 지시에 맞아야 했다. 권력을 쥔 거악과 싸울 게 아니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나. 김건희씨 수사는 검찰의 가장 큰 업보이자, 향후 수십 년간 검찰의 가장 아픈 약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금 자신들의 의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수사인 특별수사를 없애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권력이 검찰을 탐하는 것은 특별수사로 상대를 손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통제, 경찰을 치안 기구로 재정립하면 된다. 대신 미국처럼 별도의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를 만들어 수사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수사는 실수할 수 있다. 민주당에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정 기자

투자자 속여 부당이득 혐의... 금융당국, 방시혁 검찰 고발

(2000억 규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제는 피해 금융당국이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을 16일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처음 내린 강도 높은 제제다. 이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

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제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업공개(IPO) 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주식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모펀

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로 파악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임원 등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은폐했다는 게 증

선위 설명이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손에 쥐었다. 방 의장 뿐 아니라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호예수 기간을 피하고 상장 과정에서 차익을 챙겼고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 의장은 금융당국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제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2019~2020년 발생해 최근 법 재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강화된 조치를 소급 적용할 수 없어서다. 염지현 기자

이선균 협박 유희업소 실장, 2심서 징역 2년 늘었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챙긴 유희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50% 이상 높은 실형을 16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소3부(최성배 부장

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희업소 실장 A씨(31)에게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50% 이상 높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 6월

26일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범행은 전직 영화배우 B씨(30)에게 1심(징역 4년 2개월)보다 늘어난 징

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또 범행해 준범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했다. 박종서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우리말 바꾸기

결판, 결단, 절단의 쓰임새

장마철이면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전부 절판이 났는데...” “인삼밭이랑 고추밭이 완전히 절단이나 버려서 막막하죠” “태풍으로 또 피해를 보면 올해 농사는 다 결단이 나는 거지” 등과 같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마음을 토로한다.

이들의 우려 속에 눈에 걸리는 표현이 있다. ‘결판이 났는데’ ‘절단이나’ ‘결단이 나는’은 잘못된 표현이다.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지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은 ‘결판’이다. ‘결판이 났는데’ ‘결판이 나’ ‘결판이 나는’으로 고쳐야 한다. “경제가 결판이 날 지경이다”처럼 살림이 망해 거덜 난 상태를 일컬을 때도 ‘결판’이라고 해야 바르다.

‘절판’은 사전에 없는 말이다. “회오리바람에 향아리가 죄다 쓰러져 절판이 났다”와 같이 사용해진 안 된다. 글자 모양이 비슷해 헷갈릴 수 있으나 ‘결판’으로 고쳐야 의미가 통한다.

‘결단’을 ‘절단’으로 잘못 표현할 때도 왕왕 있다. ‘절단’은 자르거나 베어서 끊는 것을 뜻한다. ‘결단’ 역시 [결단]으로 소리가 나서인지 엉뚱한 곳에 쓸 때가 있다.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는 의미다.

‘절판이 나다’ ‘절단이 나다’ ‘결단이 나다’는 모두 ‘결판이 나다’로 표현해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가정 행복통신문

밥 한 그릇의 기적



캐서린 옴
한인가정상담소 소장

였고, 흰 쌀밥, 국, 반찬 등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맛, 냄새, 그리고 언어다.

2014년 AFFI를 통해 처음 배치했던 아이를 잊을 수 없다. 그는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했으며, 배치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없었던 어린 소년이었다. 한인 위탁 가정을 찾자, 그는 라틴계 가정, 흑인 가정, 그리고 백인 가정으로 옮겨다녔다. 각 가정은 그를 사랑하고, 먹고,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줄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소속감이었다.

그가 한인 위탁 가정에 맡겨졌을 때, 그는 완전히 말을 멈췄다. 밥도 먹지 않았다. 아이의 정신은 사례 기록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위탁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한 그릇, 김치

찌개, 그리고 김을 포함한 반찬 등 소박한 식사를 그의 앞에 놓았을 때, 무언가가 변했다.

음식을 앞에 둔 아이는 고향의 한 조각을 알아보고, 먹기 시작했다. 그는 밥 한 그릇을 게걸스럽게 먹고, 또 한 그릇, 그리고 또 한 그릇을 먹었다. 그날 밤 그는 세 그릇의 밥과 셀 수 없이 많은 김을 먹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입을 열었다. “밥이랑 김이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은 오늘날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다. 그것은 문화가 부수적인 것이 아님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 생명줄과 같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밥 한 그릇, 익숙한 김치 맛, 자신의 언어를 듣는 편안함, 이것들은 어쩌면 작은 것들이지만, 위기에 처한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올해 동화책 갈라를 위해 함께 모여면서, 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한 결말을 주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길 희망한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의 인생 이야기도 그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할 자신의 문화와 공동체의 따뜻함 없이는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아침에

아름다운 기대



양주희
수필가

자락에서도 웃을 수 있는 질병이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했다.

아픔의 순간은 늘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아프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위로도 있고 아프지 않았다면 해보지 못했을 생각도 있다.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성숙함과 답답함에 놀랄 때가 종종 있다.

오락가락하면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에게는 내일이란 어떤 의미인 것일까.

도심의 불빛을 뚫고 반짝이는 창밖의 별은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떠 있을 것이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늘에서 감박였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전화를 내려놓은 지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또

전화벨이 울린다. 너무 늦은 시간이다.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떠난다. 이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숙제다. 앞날을 마냥 두려워하는 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껏 걱정하다가 맞이한 미래는 잘 되어도 나쁜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을 줄 뿐이다. 오히려 미래를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인간도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마음대로 상상하고 기다려보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기대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맛보는 만큼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 맛을 찾아내고 알아가는 것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분의 의도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제한할 수는 없다.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외는 끝없이 보고된다. 인간은 바늘구멍으로 책을 보듯 바라볼 뿐이다. 그 책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령 뜻하지 않는 미래가 오더라도 별은 여전히 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기대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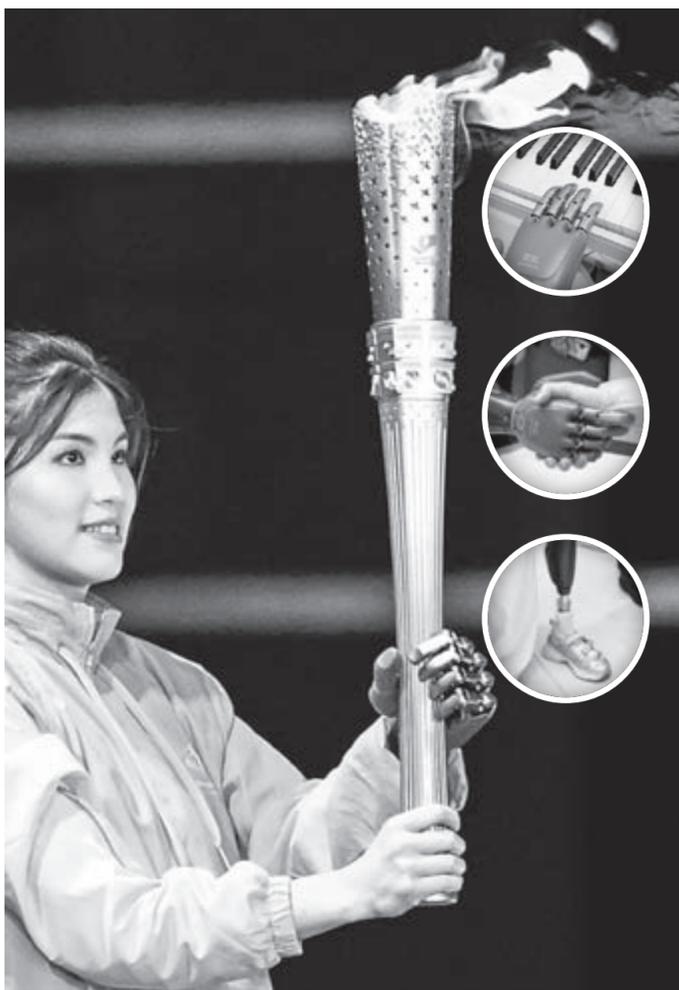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중국은 'AI 혁명' 전력질주, 한국 그만큼 절박한가

중국의 인공지능(AI) 연구와 산업 현장을 살펴보는 평화 오디세이 2025에 다녀온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중국이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AI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에 가면 항상 그 규모에 놀라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화웨이 '롄추후(練秋湖) R&D 센터', 1만 개가 넘는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는 항저우 AI타운 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중국의 거대한 국토와 인구에서 나오는 이러한 차이는 당연하겠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의 또 다른 커다란 차이점을 느꼈다. 즉 중국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관·학(産官學)이 합심해 AI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국은 절박함도 부족하고 말만 앞세우지 실행은 늦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개회식에서 브레인코의 바이오닉 핸드를 착용한 수영선수 쉬자링이 성화 봉송을 하고 있다. 브레인코는 신체를 절개하지 않고 뇌파로 인공 손·발을 움직이는 BCI 기술을 실용화했다. 위 작은 사진은 피아노를 치고, 악수하고, 걷는 모습. 장진영 기자, [신화=연합뉴스]

중국, 알파고 이후 AI 핵심 전략 설정

사실 인공지능의 힘을 일반인들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 3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일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둑은 경주의 수가 너무 많아 컴퓨터가 인간 고수(高手)를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알파고는 이세돌 9단을 4대 1로 이겼고, 한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범국가적 정책이나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1년쯤 뒤인 2017년 5월 알파고와 커체 9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다. 여기서도 알파고가 3연승을 거두었고, 커체 9단은 마지막 대국에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컴퓨터 비전, 딥러닝, 하드웨어, AI 응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기술발전 로드맵을 만들었다. 말만 무성했던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범국가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 후 7년이 지난 2024년 영국의 토머스미더가 분석한 '글로벌 AI 인덱스'를 보면 미국이 1위(100점), 중국이 2위(53.9점)를 차지하는데 비해 한국은 27.3점으로 6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 일본 앞섰다는 자만심에 혁신 약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필자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때 이른 자만심과 이에 따른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슬로

건 아래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발전했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전국에 깔아 주었고, 민간 기업은 디지털 기술로 아날로그 시대에 안주해 있던 전자업체를 앞서기 시작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과 넥슨 등 세계적인 게임 업체도 이 시기에 설립됐다. 결국 20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서는 성과를 냈고, 많은 국민이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환호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한국 특유의 '헝그리 정신'을 약화시킨 것 같다. 마치 일본이 아날로그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를 휩쓸자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듯이, 우리도 정보화 시대의 성공 경험이 자만심으로 이어져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는 개혁의지가 약해진 것이다.

우선 정부를 보자. 항저우의 신경과 학 스타트업 브레인코(Brainco)가 개

한국 현실과 대응 전략

정부 간섭·재정 부족, 경쟁력 약화, 형평성만 강조하는 입시제도 발목 다시 헝그리정신으로 혁신 나서야

발한 첨단 의수(bionic hand)와 의족은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피지컬 AI' 제품이다.(중앙일보 7월 7일자 1면) 2023년 아시안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 의수를 착용한 선수가 성화를 점화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로보틱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술보다는 그러한 제품이 이미 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는 것이다.

AI 스타트업 육성 힘 쓰는 중국 정부

한국이었다면 정부의 인증을 받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를텐데, 중국 정부는 신속히 판매 허가를 내주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스타트업 딥로보틱스가 개발한 4족 로봇은 이미 중국의 소방과 경비 분야에 납품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확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없고, 지방정부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오히려 방해하고 있으며 한전은 대책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기업들도 근본적인 혁신에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산업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얼마 전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엔비디아는 4년 전만 해도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던 기업이다. 세계 시장에서는 이처럼 기업 순위의 변동이 심해서, 올해 5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 중 20년 전인 2005년에도 10위 안에 있었던 기업은 2개 밖에 없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올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 전자인데, 20년 전에도 삼성전자가 1위였고 시가총액 10위 안의 기업도 7개는 똑같다. 즉 한국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현으로 산업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은 전공별 학생조정 거의 불가능

산·관·학의 마지막 축인 학(學), 즉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할 말이 없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기관이 가장 혁신에 앞장서야 할 것인데, 한국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우선 대학의 전공별 학생 정원 조정이 거의 불가능해서, 배출되는 AI 인재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에 의하면 세계 상위 20% 수준의 AI 연구자 중 중국 출신이 4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출신은 2%에 불과하다. 사실 중국의 AI 인재 양성은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찍이 2001년 덩샤오핑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어서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되었다. 그나마 초등학교 5~6학년에 17시간, 중학교 3년간 34시간뿐이다. 이는 중국 베이징시 초등학교의 정보기술 교육 시간 132시간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러니

우리나라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소양이 중국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과학자를 국가 영웅 대접

또한 중국은 과학자를 국가 영웅으로 대접하고 과학영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부터 영재 선발 프로그램이 있어 특별한 교육을 받고 대학입시에서도 예외적인 대우를 받는다. 딥시크를 창업한 량원평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17세의 나이에 저장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대학입시는 '형평성'만 강조해서, 국제 올림픽아드에서의 수상 실적도 자기소개서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천재급 인재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가 약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인재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폈다. 1991년 '211 공정'을 시작으로 '985 공정'(1998년), '쌍일류(雙一流) 프로젝트'(2017년) 등 주요대학 중점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서 배운 중국, 이제 입장 역전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실시해 (현재는 '치밍'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해외 석학을 유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 대학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상승해, 2025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10개의 중국 대학이 포함되고 (한국은 3개), 베이징대가 아시아대학 중에서는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수준이 높아, 지난 10년간 출원된 생성 AI 관련 특허의 70%는 중국에서 출원된 것이다. 반면 한국 대학은 정부의 간섭과 재정 부족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 미래 위한 개혁 리더십 필요

중국은 산·관·학의 일치된 노력으로 선진국 제품을 모방해 제조·판매하는 단계를 벗어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다. 한·중 수교 후 과거 30여 년 동안은 주로 중국이 우리에게서 배워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래 기술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약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이끌어 갈 리더십도 잘 보이지 않는다. 과연 한국은 중국을 쫓아갈 수 있을까.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번호)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시 설

진보 진영도 반대한 강선우·이진숙, 자진 사퇴가 답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두 후보자는 자신들에 대한 각종 의혹·논란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풀린 게 뭐가 있는지의 의문이다.

어제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교수와 제자가 공동 연구를 하는 이공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도 없이 자신을 제1 저자로 넣어 발표하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일 리는 없다. 그래서 지난 14일 ‘법학계 국민검증단’이 “학위 논문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 저자가 된다면 그 논문은 학위를 받은 학생이 쓰지 않은 셈”이라며 “그런 데도 이 후보자가 ‘실질적 저자가 본인’이므로 제1 저자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또 자신의 두 딸은 거액을 들여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냈으면서 진보 정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돼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외치는 모순도 영 씁쓸하다. 심지어 차녀의 경우는 부모 동행이 없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기까지 하다.

강선우 후보자도 비판 여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14일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

명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놔오니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기 집 쓰레기를 도보로 10분 거리인 지역구 사무실에 가져가 버리라고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 업무다. ‘직장 갑질’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그런 부처를 운영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어제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강 후보자의 입장은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에서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 된다. 진보 진영에서도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다. 전교조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과 연구 윤리 위반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도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뒤 정권인수위도 안 거치고 곧바로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을 할 조직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몇몇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민심 앞에 겸손한 자세다. 두 후보자는 정권에 더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문회 열렸지만 의혹·논란 불식하지 못해
인사 실패 인정하고 인선 원점 재검토해야**

무책임한 세금 낭비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배상 판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경기도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인 주민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 소송단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했다가 재정적자가 생기면 임기가 끝난 지자체장이라도 일부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 사업에도 경종이 되길 바란다.

용인경전철은 처음부터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경제성이 없어 아예 추진되지도 않았을 사업이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회사와 최소수입보장 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했다. 용인시는 결국 캐나다 회사에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경전철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해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지자체장의 세금 낭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

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민 소송단은 2013년 10월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민들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이 전 시장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용인시의 전체 손해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 시장 등이 책임지라는 뜻이었다. 어제 대법원 판결로 이 전 시장은 용인시에 거액을 물어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주민들이 직접 소송 주체로 나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용인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이라도 임기 중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 사업이라면 각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용인경전철처럼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수요예측을 부풀린다면 그 책임은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지자체장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금 낭비성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윤석열의 오징어 게임

김승현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강제 소환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깊은 한숨이 나온다. 변호인단은 한술 더 떠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는 경고를 했다.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때 수나라 장군 우중문을 ‘돌려 끼기’한 한시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를 인용한 것이다. 뒀 눈에는 뒀만 보인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는 걸로 윤 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

윤 전 대통령의 철면피 행각은 66쪽짜리 구속영장에서 잘 드러난다. 상황이 잘못됐음을 감지한 부하들을 ‘귀신같은 책략’과 ‘오묘한 꾀’로 다루고 있어서다. 자신의 망상을 실현하려는 명령에 군 장성과 경호처 간부들은 속속 범죄자로 전락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경우, 123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는다. 계엄 해제가 의결되던 시점이다. 앞서 ‘4인 1조’ 의원 끌어내기를 지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명령과 호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은 판이했다. “계엄 해제 뒤 국회에 간 군인들을 신속히 나오게 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흥행작 ‘오징어 게임’에서나 볼 법한 돌변과 배신이다. 이 영화에선 ‘동글게 동글게’ 동요에 맞춰 짝짓기 게임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동료의 손을 뿌리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비밀비재하게 벌어진다.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탈락자처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애초에 부하의 손을 계속 붙들고 있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456억원의 상금에 눈이 멀어서로 죽음을 궁지에 몰아넣는 영화처럼, 윤 전 대통령은 기이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영화는 일면식도 없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진 반면, 구속영장 속 현실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이뤄졌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전 차장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비화폰 증거를 없애려다 증거인멸의 공범이 됐다. 그는 검찰·공수처·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7일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삼단논법으로 받았다. “수사받는 그 세 사람(여인형, 이진우, 광종근)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비화폰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함부로 쉽게 볼 수 있으면 그게 비화폰이겠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는 내용이다. 지시를 이어받은 지원본부장이 증거인멸죄를 염려하면서 기록 삭제는 이행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게임을 멈추려는 자와, 나만 안 다치면 된다는 빌런이 영화처럼 공존하고 있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1월 11일 전후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너희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지시까지 했다. 게임 규칙상 피할 수 있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영화 속 클라이맥스가 연상된다.

**참가자 죽어도 게임 계속하듯
부하 몰락해도 망상 안 멈춰
법치 다짐도 자신만을 위한 것**

조은석 특검의 말대로 사초(史草)처럼 적힐 수사 기록은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의 실제적 진실을 담게 될 것이다. 실험용 쥐 신세였던 부하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나게 된다. 최후의 모습은 탄핵소추 법률대리인단을 이끌며 그를 지켜본 김진한 변호사가 최근 언론에 묘사한 것과 비슷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초라하고 허황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과대망상가, 거짓말쟁이, 주변 아부꾼들의 거짓말에 쉽게 속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보신을 위한 공리를 멈추지 않는 듯하다. 법치주의의 다짐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특검팀의 강제 소환을 거부한 그는 16일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굴어도 되는 오징어 게임장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착잡하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불만·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세창이노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미국의 USA TODAY, 미국의 USA TODAY, 미국의 USA TODAY, 미국의 USA TODAY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소름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7월 SUMMER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Bang & Olufsen 음향기술 탑재

고급 천연가죽시트

10인치 터치 테블릿 리모컨

XD-PRO 마사지 모듈

척추 라인 마사지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컴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빛 우드 패턴' 디자인!

첫 발을 뗀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께 마사지와 자전거타기 운동을 동시에!!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재미!

AI 제어 시스템

사이드 보드

복합력 보잉 / CBF

16개 안전센서

직접 조작하기 가능

보이스 마사지

명절 마사지

펄스파 마사지

안도 모드

지능 제동장치

블루투스 직결연동

휴대폰/패드와 연결

명절 마사지

XD-PRO

명절 보호판

바디프랜드만의 새로운 기술

Medical PHANTOM

안마의자인가 의료기기인가

바디프랜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 * PEMF 전자자장으로 근육통 완화!
- *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한 견인!
- * 퇴행성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견인!

이런 분들께 팬텀 메디컬 케어를 추천합니다!

- 목과 허리 근육통 완화를 원하시는 분
- 목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를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장치가 필요하신 분
-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거나 공부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 거치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근육통이 있으신 분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속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율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전면: 고급 인조 양털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밍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정산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거품을 채우고 따르세요~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신라면 × 너구리 × 짜파게티 농심 라면 삼총사

Nongshim Ramen Trio - 10 PCS (Shin / Neoguri / Chapagetti)

JUL. 17th - JUL. 24th, 2025
• 10팩 박스 •



~~\$16.99 ~ \$18.99~~

10X120 G / 10X127 G



\$8.99

판매가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추가옵션 또는 수령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1901 W Broad St
Richmond, VA 23214

Sterling, VA
26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55 Meritway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008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2000 Fairview Road Plaza
Ashburn, VA 20141

Herndon, VA
4000 Lee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028

Rockville, MD
1300 Via L'Espresso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11 Monticello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파이낸스 & 연예/문화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ly 17, 2025 C

빙·난방 재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암호화폐로 내 집 장만 시대 열렸다

암호화폐가 점차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암호화폐로 주택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 25일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국책 모기지 대출기관인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단독주택 모기지 리스크 평가 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반영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는 방법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모기지 전문 기업 마이로(Milo)의 최고경영자(CEO) 조시 루페나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모기지를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주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로는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100% 용자를 제공한다. 주택 가격과 동일한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면 별도의 다운페이먼트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짜리 집을 구매하고 싶다면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대출 신청시 크레딧 점수나 소득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혜택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모기지 승인이 어려운 일부 구매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암호화폐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그래픽=박낙희 기자

크레딧·소득 증빙 없이 비트코인 담보로 100% 용자
절차 빠르고 장기 보관으로 자산 가치 상승 기대도
이자율 일반 대출보다 높아... 직접 결제는 시기상조
될 수 있다.
또한 대출 기간 안전하게 보관되는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상황이 완료되면 담보를 돌려받게 된다.
마이로 측은 “크레딧 점수나 세금 신고서 없이 암호화폐 보유액만으로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고객의 자산을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전통 금융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른 절차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에서 요구되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

는 레든(Ledn), 넥소(Nexo), 솔트(Salt)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담보로는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의 암호화폐가 사용된다.
주의해야 점은 암호화폐 담보를 통한 모기지의 이자율은 9~10% 수준으로 일반적인 대출보다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소 대출 금액이 27만5000달러인 점 또한 숙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는 변동성에 대비해 대출금의 150% 이상 가치를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일정 기준 이하로 담보 가치가 하락할 경우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자는 추가 담보를 예치하거나 자산 이자율 청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주택 직접 결제 방식도 일부 거래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규제 및 절차 면에서 본격적인 상용화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판매자는 비트코인을 직접 수령하거나, 암호화폐 결제 대행사를 통해 달러로 전환된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이 방식은 세법상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규제 틀도 미비해 거래 별로 절차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우후식 기자

주택시장 투자자 비중 27%로 급등

현금·차입력 앞세워 구매 늘려
높은 금리·집값에 실수요 이탈
거래 중 투자자 비중은 26.9%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투자자는 1분기 26만5000채의 주택을 구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투자자의 거래량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실수요자의 시장 이탈을 보여준다.
배치데이터는 주택 구매 목적이 실거주자 아닌 임대용이나 휴가용 주택일 경우 투자자 구매로 분류한다. 전체 단독주택 8600만 채 중 약 20%는 투자자 소유로 추산된다. 배치데이터는 “이번 수치는 투자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

다기보다는 주택 구매 여력이 떨어진 일반 수요자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은 2022년 초부터 계속된 고금리 기조로 매매가 급격히 둔화된 상태. 지난해에는 연간 거래량이 30년 새 가장 낮았고 이는 올해 상반기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센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수업료: \$295 (교재비: \$100)
신입생 환영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폭집계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파관반 모시면 100% 합격보장!!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공사전 공사후 공사전 공사후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85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골프, 아주 예쁘고 잘 꾸며진 집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950,000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p>\$999,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집, 벽돌, 마루바닥</p>	<p>\$1,05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우드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많이 함</p>	<p>\$1,875,000 비엔나 싱글홈 방 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p>	<p>\$349,900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p>	<p>\$1,075,000 포트맥 싱글홈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트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p>	<p>\$649,000 SE 타운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이쁜 집</p>
--	---	--	--	--	---

주거난 전국 최악... 수요, 공급의 4배

LA 부족 주택 수 34만채
SF·SD·샌호세도 톱5 들어
타인과의 공동 거주 급증
건축 규제·비용 장벽 여전
주정부 주택청 신설키로

LA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공급 대비 수요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체 질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LA에서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 주택 수는 11만4244채였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과 거주지를 공유하는 가구는 무려 45만2994가구에 달했다.

33만8750채의 격차를 보여 공급 가능 주택 수 대비 수요가 4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공실 주택 수는 11만3243채, 공동 생활을 하는 가구의 수는 44만9971가구로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주택 부족 현상은 특히 LA를 포함한 거주 주요 대도시에서 두드러졌다.

샌프란시스코는 총 5만1356채의 공실 주택이 있었지만, 19만1346가구가 집을 공유하며 사는 것으로 집계돼 격차는 13만9990채로 거주에서 LA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전국 기준으로도 세 번째였다.

이어 4위인 샌디에이고는 가용 주택 수가 2만6824채, 공유 거주 가구는 12만2655가구로 차이가 9만5831채에 달했다.

5위 또한 샌호세로 1만9030채의 주택에 비해 공유 거주 가구는 7만5408가구여서 5만6378채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황은 심각했다. 가용 공실 주택 수는 약 340만채에 불과한 반면, 타인과 거주지를 공유하는 가구는 무려 810만 가구에 달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격차는 약 470만 채로 1년 전보다 15만9000채 증가했다.

질로는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많은 가정이 타인과 주거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신

규 주택 건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주택 부족의 확산을 일정 부분 억제했지만, 누적된 격차를 해소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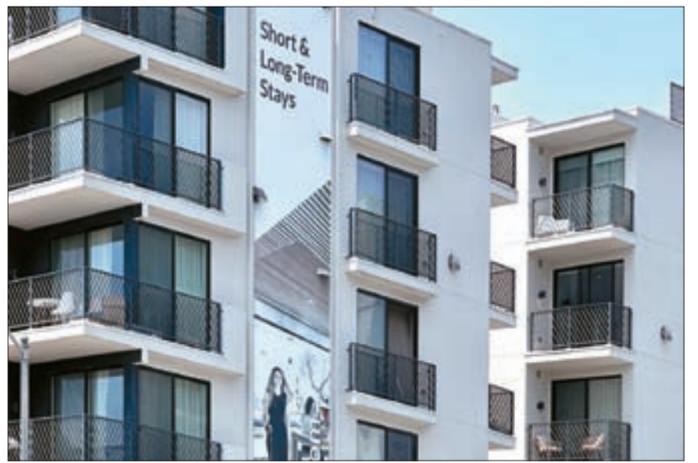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주택 부족은 2022년의 증가분 25만7000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공공주택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주는 높은 건축 비용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토지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신규 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작한 젊은 세대들이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대출 장벽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거주 형태를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공유 거주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Z세대



거주 주요 도시의 주거난이 전국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의 다세대 주택. 박낙희 기자

(29%)가 그 뒤를 이었다. X세대와 베이비부머는 각각 17%, 16%로 집계됐다.

한편 거주 정부는 주거 문제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주거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해 초 기존의 '비즈니스·소비자서비스·주택청'을 분리,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거주 의회는 이 계획을 지난 4월까지

기회를 두고 논의했으나 결국 반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새로운 주택 전담 기관 설립 작업을 공식화했다.

거주 주택 컨소시엄의 레이 펠 전무는 "주택 담당 내각 기관이 생긴다는 건, 그 자체로 주택 의제를 최고 정책 우선순위로 격상시키는 의미"라며 향후 주택 예산 프로그램에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윤식 기자

수도권 전셋값 23개월째 상승, 곡선 가팔라져

(서울 포함)

불안 커지는 전·월세 시장

서울·수도권 모두 6월 상승폭 확대 '6·27 쇼크' 전세 매물 더 줄어든 듯 전세, 월세화 가속... 월세값도 경중 서울 아파트값 6년9개월새 최고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셋값의 상승폭이 점차 커지며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 상승은 물론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4% 오르며 지난달(0.15%)보다 상

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3% 올랐다. 수도권 전체 주택과 아파트 전셋값 역시 각각 0.11%, 0.13%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6월 입주 물량이 많았던 서초구(-0.3%)를 제외한 24개 구의 전셋값이 모두 올랐다. 반면 지방 전셋값은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일부 선호 단지에서 매물 부족이 나타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0.17% 오르며 23개월 내리 올랐다. 서울은 0.29%, 경기도는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간 '전세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6월 전국 전세가격 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을 하위 20%로 나눈 값)

은 77로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 전셋값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4000가구로 상반기 대비 17% 감소할 전망"이라며 "전세 수요를 고려할 때 전셋값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6·27 규제로 겹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등이 막히면서 전세 매물은 더 줄 수 있다. 매물 감소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도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다 이달 21일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되면서 전세 매물 부

족, 전세가 상승, 전세의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금지, 전세 대출 상한액 설정 등 추가 규제에 나설지도 변수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3.1%로 2021년 6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월세 비중은 각각 61.6%, 66.1%였다. 아파트만 따로 보면 수도권(44.6%), 비수도권(47.3%) 모두 최근 5년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출 규제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대차인이 늘면서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증가할 전망이다.

월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6월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월 대비

각각 0.13%, 0.29%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한국부동산원).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세 상승과 월세화 가속으로 체감 주거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라며 "향후 아파트 전·월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1.4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1.84%) 이후 6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0.09% 하락했다. 김태윤 기자

제이미슨, 다운타운 빌딩 매물로

공실 증가·부채 압박 영향

한인 최대 부동산 기업 제이미슨 프로퍼티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LA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사진)을 매물로 내놨다.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제이미슨은 LA다운타운 윌셔(811 Wilshire Blvd.)에 위치한 33만

7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오피스 빌딩과 맞은편 주차장(616 Figueroa St.)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번 매각 시도는 해당 자산이 압류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은 21층 규모의 해당 건물을 지난 2003년 265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2014년에는 3900만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커머셜 모기지 대출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3500만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우윤식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라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ED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로케이션
수리중: Brand New LVP Floor,
전체 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숲이 아름다운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낙관론 속 경고등... 자산 재조정 시점 왔다

리밸런싱

2025년 여름 국내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자 심리는 극단적으로 낙관적이며 주식 외에도 다양한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시장이 열광할수록 그 이면에 잠재한 리스크는 더욱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시장이 모두 한쪽으로 쏠릴 때 자산 재조정, 즉 리밸런싱의 기회는 반대로 열린다. 지금은 그럴 시점일 수 있다.

▶과열된 심리와 알아진 유동성

변동성 지수(VIX)와 나스닥 변동성 지수(VXN)은 지난 주말 기준 각각 15.78과 18.71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리스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NN의 '공포와 욕망 지수' 역시 과열된 투자심리를 가리키고 있다.

최근 한 달간 하락 종목의 거래량 비중이 전체의 42%에 불과하다는 블룸버그 보도는 그야말로 '매도자가 없는 시장'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요즘의 투자 자금은 모두 레버리지 ETF,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옵션 등 고위험 고수익 구조로 몰리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국내 주식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환경은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종종 나타나는 공룡된 징후다. 시장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그 상승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자산 재평가의 방식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7월 초 4.18%에서 4.43%까지 단기간에 상승했다. 이는 연초 3.85% 수준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특히 현재는 금리가 다시 5%대를 넘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8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단순히 채권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과 대체자산의 밸류에이션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낮은 금리 환경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이 높은 성장주나 장기 테마주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의 현재 가치는 하락한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S&P500 내 소수 대형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현재 시장 구조에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이 과열 양상이며 리밸런싱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

증권시장 사상 최고치 근접...과열 심리 주의

하락장 리스크 대비해 포트폴리오 변화 고려

빅테크 등 가치 높은 주식, 수익 실현·현금화 중요

달러 강세 활용해 글로벌 분산 전략 재정비해야

서는 금리 상승이 시장 전반의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점은 이 충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강달러 전환

금리 상승과 함께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요인은 달러 반등이다. 7월 1일, 달러 인덱스(DXY)는 96.377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지점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었으며 반등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달러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리밸런싱을 유도할 수 있다. 먼저 해외 자산의 상대 매력력이 감소할 수 있다 점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 환차손 위험 때문에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에서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대 수익률도 하락하게 된다. 강달러는 또 원자재 및 신흥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달러는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압박하고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신흥국에는 자금 유출과

통화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원자재 관련 자산이나 이머징마켓 펀드는 그동안 약달러 흐름에서 수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달러 반등은 이들 자산에 부정적 신호가 된다.

이외 금과 같은 대체자산 투자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 가격은 보통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 금 가격은 고점을 찍고 조정 중인데 달러 반등이 확실시 될 경우 금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상승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리밸런싱의 방향

이러한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은 단순한 마켓 이벤트가 아니라 자산 간 상대가치를 재조정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밸류 자산 수익실현 및 현금화다. 특히 빅테크 중심의 나스닥이나 AI, 클라우드, EV 등 미래지향형 고성장 섹터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 환경이

바뀌면 이들 자산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사라질 수 있다.

두번째로 단기 채권 또는 고정수익 자산 재편이다. 금리 상승 초기 국면에서는 장기채보다 단기물의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높은 유동성과 낮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단기채 ETF나 단기 회사채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달러 강세를 활용한 글로벌 분산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ETF나 수출 중심의 산업채, 항공, 방산 등 국내 달러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체자산 노출 재검토 역시 중요한 체크 사항이다. 원자재, 금, 암호화폐 등 대체자산의 비중이 높았다면 일정 부분 축소하거나 헤지 전략을 병행할 시점이다.

▶포지션 점검

지금의 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긴장이 쌓이고 있다. 시장은 늘 낙관 속에서 정점을 찍고 긴장 속에서 바닥을 다진다. 금리와 달러의 변화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자산 가격의 가치평가 프레임을 바꾸는 신호다.

지금 이 꼭 시장의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도 분명히 알 수도 없다. 하지만 포지션을 다시 돌아보고 리스크를 줄이며 '준비된 상태로 다음 국면을 맞이할 시간'임은 분명하다. 리밸런싱은 타이밍이 아닌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원칙을 되새기기에 더없이 좋은 시점이다.

켄 최이퍼스 자산관리 대표

칼럼

연방·주정부 차원의 공공 보험 마련 시급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공식 법제화되면서 부동산 보유 및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법안이 주택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전미부동산협회(NAR),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유지되며, 특히 재산세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또한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의 연장 및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프로그램(LIHTC)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저개발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 상향(현재 싱글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은 포함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양도세 면제 한도를 두 배 이상 상향해 은퇴 자산 확보 및 재투자자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으로 부부 기준 두 채의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이 75만 달러로 영구 확정됐으며, 과거 100만 달러 한도로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한편, 세입자의 렌트비 납부 이력과 유틸리티 납부 내역을 신용점수에 반영하는 의무 규정도 도입돼, 신용 기록이 부족한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FHA 등 정부 보증 용자는 '비전통적 신용'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이 낮은 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수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LA시를 중심으로 ADU의 별도 매각 허용을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높은 건축 비용과 용자 제한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유지비용의 급등이다.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의 어려움, 보험료 급등, 그리고 화재 등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 확대로 인해 주택 보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떠오르고 있다. 광채혁 퍼스트트림부동산 에이전트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Woodbridge 외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상급층 4/20마켓에 올라올 예정	7월 말-8월 초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8512 Pine Spr, Severn, MD	2.75% 군인 용자 그대로 이어받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8/18 세팅먼트 완료	NEW	NEW
1631 Cecile St, McLean, VA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팅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우월하며 오픈할 필요 없음 7/1 세팅먼트 완료	RENT	\$3,600 4층, 최고 2차원층, 넓은 집, 관리정리됨, Willow Woods ES
1930 Battery Park, Vienna, VA	여러 오피스 경쟁 돌고 득템. 이기는 오피스 자산 있음. 5/20 세팅먼트 완료	RENT	\$2,100 2층, 4방, 3 욕, 1.5, 부엌 리모델링, 교통상 편리
2325 9th St, S, Arlington, VA	5/23 세팅먼트 완료	RENT	\$4,300 3층, 최고 1차원층, 지하층, 최고 전세 매물, 관리정리됨, Haycock 초-중등교육, 역세권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복수 오피스 빌딩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렌트. 3주만에 세팅먼트 완료 3/21 세팅먼트 완료	RENT	\$5,000 5천 평, 레노베이션했음, Greensboro/Spring Hill 메트로권이라 수 있음, West Briar ES - 집이 중 -
사업체 매매	델라웨어(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상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팅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국세청(IRS)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종교기관이 예배 중 정치적 견해를 밝히더라도 면세 혜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 종교기관 정치후보 지지 허용

존슨 수정안 따른 면세 지위 박탈 안해 법원 제출 서류에서 공식 입장 밝혀

국세청(IRS)이 종교기관이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의 이런 입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IRS는 종교기관이 예배 중 평소의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경우, 이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이를 '가정 내 대화'에 비유하며, 이러한 표현은 존슨 수정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예배 중이나 통상적인 신앙 전파 수단을 통해 교회가 교인에게 전달하는 신앙적 맥락의 발언은 가족 간의 정치 대화와 마찬가지로 존슨 수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접적인 정치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954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B 존슨이 발의한 세법 수정안인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은 교회와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비영리 단체가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 발표나 기부 등 특정 공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IRS의 세금 면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전국종교방송연합회(NRB)와 텍사스에 위치한 샌드스프링스교회, 와스콤 제일침례교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IRS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교회 내 정치적 발

언이 일괄적으로 금지될 경우, 신앙에 근거한 사회 참여의 자유마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또 IRS가 일부 비영리 신문에는 후보 지지를 허용하면서 교회 등 다른 비영리 단체에는 금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RS는 과거에도 존슨 수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조사하기도 했다. 델러스 제일침례교회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지만 IRS 조사를 받는 동안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이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공언했고 교회가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IRS는 새로운 입장 표명과 함께 샌드스프링스 교회와 와스콤 제일침례교회에 존슨 수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NRB 측은 판결 확정 전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법 전문가인 로올라대학 로스쿨 썬브러튼 교수는 이번 합의가 IRS의 기존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존슨 수정안이 시행된 지 70년 동안 면세 박탈 사례는 단 한 건이었고 교회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려 한 경우도 IRS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종교 단체는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면세 혜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동맹은 지난 몇 년 동안 '설교단의 자유' 캠페인을 주도하며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했으나 지금은 캠페인을 중단한 상태다.

비영리단체인 '종교와 국가의 분리(AU)'는 이번 합의안이 종교기관을 정치행위 주체로 바꾸면서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정치 자금인 '다크머니'가 선거에 더 많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는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설교단의 정치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2023년 공공종교연구소(PRR)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종교 집단에서 종교기관이 면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백인 복음주의자(62%), 흑인 개신교도(59%), 주류 개신교도(77%), 백인 가톨릭(79%), 히스패닉 가톨릭(78%), 히스패닉 개신교도(72%), 유대인(77%) 모두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2019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6%, 기독교인의 70%가 성직자의 후보 지명 발언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IRS가 어떤 소송을 통해 제출한 문서와 해석으로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존슨 수정안 해석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존슨 수정안의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해석과 적용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교회와 종교 단체의 정치적 발언 자유와 세금 면제 지위 사이의 경계가 다시 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멸의 참된 영혼은 천국 간다 주장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플라톤 철학과 종교
육체와 영혼은 분리 가능해
죽으면 영혼이 육체서 분리
다른 육체로 가며 영혼 불멸

플라톤은 그의 저서인 '파이돈'에서 사람이 죽으면 불멸하는 참된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했다. 여기서, 천국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만 지혼(知魂)으로서 불멸한다고 했다. 즉, 현상세계에서 질료와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을 이루고, 인간의 신체적 운동과 인간의 존재 목적은 신이 주입한다고 했다. 즉, 신에 의하여 운명 지어진다라는 것이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그의 신에 대한 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그는 지식과 선(善)은 서로 연결된다고 했다. 즉,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므로 지식을 쌓으면 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마치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같아 보인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식을 쌓는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 했다. 그리스 성현들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 것처럼 보인다. 그는 성서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함인데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함이라 했다. 즉, 행복의 조건은 영원불멸한 것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 둘을 만족하는 것은 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을 자기 내면에 두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참 진실을 마음속에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늘 욕정과 성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해도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기는 인간으로서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성인인 그리스도를 내면에 모시고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이라 했다.

프로이트는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이란 글을 읽고 성욕에 대한 그의 믿음을 굳건히 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부

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은 아마도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진정한 종교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계몽주의자들과 니체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헤브라이즘에 가까운 사람으로 평가 절하했다. 반면에 가톨릭과 개신교, 실존주의자, 종교개혁파, 신비주의자, 낭만주의자는 그를 최고의 그리스도교 전도사로 본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로 사용될 만큼 아우구스티누스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플라톤은 세상을 감각으로 지각하는 물질세계와 지성으로 파악하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나눈다.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의 영혼은 세계영혼이 주재하는 이데아 세계에 있던 것이 물질세계로 유출된 것으로, 이 영혼은 불멸하며 이데아계를 동경하는 것에서 진정한 인식이 얻어진다고 한다. 그들은 감각적 지식은 단순한 의견(doxa)이며, 영혼에 의한 지적 직관으로써 동경하는 것이 참지식이라고 한다. 후설의 현상학도 순수의식을 통하여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라 했는데, 신플라톤주의를 많이 참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육체에 잠시 머무는 영혼에 의해 이데아계를 인식하는 영혼에 인간 최고의 기쁨이 있고, 철학자는 현실 세계를 이 이상에 근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플라톤의 질료형상론에 따르면, 육체(질료)와 영혼(형상)은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육체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영혼 불멸을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와 영혼은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영혼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생혼(生魂)으로 이는 식물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근원이라 했다. 둘째, 각혼(覺魂)으로 이는 동물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근원이다. 셋째, 지혼(知魂)으로 이는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생명력의 근원이다. 이해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히 살게 되어있는 영혼, 곧 지혼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했다. 가톨릭 교리서에는 "하느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있으며, "영혼은 죽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되어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승 학군 싱글홈

\$1,9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페어팩스씨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주택 매매 / SALE



새 빌더홈, 찬탈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애플러스 부동산 / 비키리 부동산

20년 경력의 탑 에이전트의 노하우가 남다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비키리 부동산,
부동산의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703-231-5572 (카톡 상담가능)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조진욱 드림부동산 부사장

SBA 융자

소상공인 위해 최대 500만 달러 대출 까다로운 심사와 높은 수수료는 단점

요즘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활발한 분야는 비즈니스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사업자들이 여러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대출 즉 SBA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융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소기업청의 SBA 융자는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일반 비즈니스 융자보다 적은 다운 페이먼트와 긴 상환 기간으로 많은 한인 사업주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스몰 비즈니스의 정의는 서비스 업체의 종업원은 500명을 넘지 말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경우 1500명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연 매출은 연방 중소기업청이 구분하는 사업체 별로 세분화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청 웹사이트(sba.gov)에 방문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대략 20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을 스몰 비즈니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년간 연평균 순소득이 500만 달러 이하여야 되는 조항도 스몰 비즈니스 정의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SBA 융자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7a와 504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7a 프로그램은 스몰 비즈니스에 많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며 504는 부동산 또는 장비에 관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 7a 프로그램은 가장 광범위하고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소매업주

들이 7a 프로그램으로 개인 비즈니스의 꿈을 이루고 있으며 한인은행의 대표적인 융자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융자 보다 낮은 10%의 다운페이로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 액수는 최대 500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504 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장비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상업용 창고 및 오피스 건물에 많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504 프로그램은 일반은행과 CDC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라는 정부 승인 융자 기관이 각각 총 융자 액수의 50%와 40%를 나누어 융자를 하는 형태이며 사업주는 10%의 다운페이와 최대 25년의 상환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건물의 51%를 본인의 사업장을 위해 사용하여야 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SBA 융자의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최소 2년 이상의 해당 비즈니스 경험을 요구하지만 관련된 사업 분야의 직장 경험 또는 경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력 등 유능한 은행 대출 관계자의 조인을 통해 대체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SBA 융자의 단점으로는 조금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일반 융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융자 수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

휴가시 빈집 관리

창문 열어 놓아 스모크 알람 오작동 막아야 이웃이나 지인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필수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데 어떻게 집을 안전하게 집을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가장 많이 염려되는 것이 보안 문제다. 특히 여름 연휴 기간에 빈집 털이가 극성이다.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빈집을 털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가령 연휴 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차량이 집 주위를 돌아다닌다면 더욱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전문적인 빈집 털이범들은 해당 집주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파악하고 집을 비길 기다린 다음 약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집을 장기간 비게 되면 집에 누가 있다는 것 표시를 해야 한다. 가령 이층에 미등을 켜놓던지 TV를 틀어놓는다. 또 쓰레기통을 내놓아야 한다면 이웃에게 쓰레기통을 넣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좋다. 집 앞에 쌓인 신문이나 택배는 빈집 털이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이 빈 동안 집 내부에 물이 터지거나 스모크 알람이 오작동으로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집을 떠나기 전에 워터 셋 오프 밸브를 아예 잠가 물이 새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또한 이층집일 경우 이층 창문을 약간 열어 놓아서 집 환기가 잘 되어 스모크 알람이 오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운 시기 전기를 많이 쓰면 일시적인 정전 사태가 일어난다. 이때 전기로 작동되는 주방 기구들이 오작동한다.

특히 정수기나 비데 같이 물을 쓰는 기구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오작동을 해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주방 쪽에서 물과 관련된 주방 기구는 아예 전기와 분리하는 것이 좋다. 정수가 주방 카운터 탑으로 나오게 되면 부엌이 물바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만약에 상당한 기간 집을 빌 경우에는 가까운 이웃에게 지인의 전화번호를 주어서 비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꼭 지인이나 인근 친척에게 열쇠를 하나 주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한번은 손님이 약 한 달 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 워터 탱크가 터져서 옆집에서 전화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 워터 탱크에서 새 물이 옆집까지 흘러서 연락을 한 것이다. 다행히 집 주인이 이웃과 평소 친하게 지냈고 마침 미리 지인의 전화번호를 주어서 누수로 인한 이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휴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육안으로 간단하게 주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이 새었는지를 확인한다. 조금씩 흐른 물도 나중에는 집에 크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화장실 싱크와 냉장고 밑, 워터 히터 주위에 물이 새는지 살핀다.

또한 그동안 정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정전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다 지어져 잔디에 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다.

주택 시장에서 매물 회수 급증

5월 기준 전년보다 47% 증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파는 셀러 아예 시장에서 나와 관망세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리얼터닷컴이 밝혔다.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게 된 셀러들이 아예 매물을 시장에서 빼고 있는 것이다.

리얼터닷컴 경제연구팀의 주간 주택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매물 회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급증했다. 1월부터 5월

까지 누적된 회수 건수도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매물 재고가 늘어난 것과 맞물려 있다. 6월 기준 시장에 나온 매물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신규 매물도 1년 전보다 8.8% 늘었다. 전체 매물은 늘었지만 증가세는 지난 두 달 동안 정체 상태로 돌아섰다.

증가세 정체를 보여주듯 매물 회수 건수는 신규 매물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5월에는 신규 매물 100건당 13건이 시장에서 회수됐다. 이는 2022년의 6건과 2023년 10건, 2024년 10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부 셀러들이

비현실적인 가격을 고수하다가 바이어가 나타나지 않거나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집값을 낮추는 대신 매물을 거두고 관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리얼터닷컴의 제이 크리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매물 회수 배경으로 여유 있는 주택 소유주의 증가를 들었다. 과거 주택 시장 사이클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소유주에게 팔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지금은 주택 소유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매물을 회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매물 재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돈다. 주택 가격은 정체나 하락세에 들어섰다.

리얼터닷컴의 대니얼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

는 “올해 주택 시장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며 “바이어 입장에서 몇 년 만에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셀러들은 여전히 최고가 기대를 하고 있어 가격이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흐름이 시장을 균형 상태에서 바이어 우위 시장으로 바꿀지는 앞으로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물 회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상황이다. 6월에는 매물이 두 달 연속 100만 건을 넘겼다. 팬데믹 이전보다 13% 낮은 수준이지만 격차가 줄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6월에 전체 매물의 20.6%가 가격을 인하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6년 이후 6월 기준 최고 기록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ty 1 Maryland featuring listings in Rockville, Bethesda, Gwynn Oak, ElkrIDGE, Nottingham, and Columbia. Includes contact info for Jinny Choi and Stacy Yang.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노안 왔다지만, 실력 어디가나

55세 최경주, 디오픈 챔피언십 출전
작년 시니어 오픈 우승해 출전권
술·커피·탄산음료 끊고 체력 유지
“노안에도 경사 보는 건 문제 없어”

최경주 캐디에게 “지난해 제주도에
우승할 때 봤다”고 아는 체를 했다. 개
울로 향한 공이 기적적으로 작은 섬에
올라간 덕분에 파세이브로 우승한 지
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
텔레콤 오픈 연장전의 이른바 ‘섬 세이
브’ 얘기였다. “그때 운이 좋았다”는 말
에 최경주가 “아니다. 신의 뜻이었다”
며 웃자, 캐디는 다시 “운이 좋은 거였
다”고 키득댔다. 경쟁이 치열한 투어에
서 대개 선수와 캐디는 긴장 관계다. 최
경주는 캐디와 농담을 나누며 행복하
게 투어생활을 하는 듯했다.

최경주(55)가 9년 만에 메이저 무대
에 나왔다. 17일 영국 북아일랜드의 로
열 포트러시 골프장(파 71)에서 개막하
는 제153회 디오픈 챔피언십이 그 무대
다. 남자 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다. 로열 포트러시에서 디오픈이 열리
는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한국 선
수는 최경주 외에 임성재, 김주형, 김시
우, 안병훈, 송영한이 출전한다. 디오픈
의 총상금 규모는 1700만 달러(약 236
억원), 우승 상금은 310만 달러(약 43억
원)이다.

최경주는 2016년 PGA 챔피언십을
끝으로 메이저대회에 나오지 못했다.
디오픈 마지막 출전도 지난 2014년이



1 최경주는 17일 개막하는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9년 만에 PGA 투어 메이저 무대에 나선다. 2 지난해 SK텔레콤 오픈 연장전 우승을 안긴 18번 홀 앞 작은 섬에서 캐디(왼쪽)와 기념 촬영한 최경주. 3 그는 독심으로 55세 나이에 메이저대회 출전권을 땀다. 성호준 기자, [사진 KPGA]

다. 최경주는 지난해 시니어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이번 대회 출전권을 얻었
다. 그의 53번째 메이저대회 출전이다.
젊을 때 얻은 역대 우승자 자격으로 50
대에도 메이저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는
선수는 더러 있다. 하지만 50대 나이에
메이저대회 출전권을 새로 따는 선수
는 흔치 않다. 독심의 최경주이니까 할
수 있었다.

최경주의 첫 메이저대회가 1998년
이 대회였다. 2007년 커누스티에서 열
린 디오픈 최종라운드를 공동 3위로
출발했다가 공동 8위로 끝냈다. 2008년
로열 버크데일 대회에서는 그렉 노먼에
2타 차 공동 2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
했다. 최경주는 “마지막 홀에서 퀴드러
플 보기를 하는 대형사고를 쳐 순위가
밀렸다”며 웃었다. 디오픈은 메이저 대

회 중 처음으로 그에게 문을 열었고, 우
승 기회를 줬고, 지난해 시니어 오픈 우
승컵을 선사했다. 디오픈은 3, 4, 8위를
했던 마스터스와 더불어 최경주가 가
장 풍성한 성과를 낸 메이저대회다.
최경주는 체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
술·커피·탄산음료를 끊고 운동을 열심
히 한다. 시니어 투어는 카트를 타도 되
지만 걸어 다닌다. 시력은 어떨까. 그는

“그런 경사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노안이 와서 흐릿한 날 티샷할
경우 문제가 있을 때도 있다.
흑 라인이라 생각했는데 막
상 어드레스하면 슬라이
스 라인으로 보이는 등
헛갈리는 때가 있다”고
했다.

50대인 최경주가 젊은 선
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물론
쉽지는 않다. 최경주는 “오늘(15일) 바
람이 불지 않으니 선수들이 파 4홀
의 페어웨이 병커는 다 그냥 넘
겨 버리고 파 5홀에서 4번 아이
언을 치기도 하더라”고 말했
다. 바람이 분다고 장타자가
꼭 불리한 건 아니다. 그러나
바람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인
내심이 부족한 선수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최경주의 장점이 조금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최경주는 “이 코
스는 링크스치고는 그린 경사가 심해
그린 속도가 느리다. 지난해 시니어 오픈
우승할 때 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번 디오픈이 최경주의 PGA 투어
499번째 출전 경기다. 최경주는 “이 대
회에서 컷 통과를 한다면 PGA 투어
역대 우승자 카테고리에서 순위가 올
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500번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최경주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경
주는 현지시각 17일 오전 6시 46분(한
국시간 오후 2시 46분)에 티오프한다.

포트러시(영국)=성호준 골프전문기자

“세트피스 부족, 조직력 더 다듬어야”

전문가들이 본 한국축구 과제
“상대 철저히 분석한 맞춤형 전술 필요”
이호재·강상윤 등 신에 발골은 수확

“내년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팀은 대부
분 한국보다 강하다. 이번엔 드러난 약
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1승도 어렵다.”

전문가 평가는 냉정했다. 한국이 2승
1패를 기록한 채 지난 15일 끝난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
십(동아시아컵)을 가리켜 이들은 “많은
숙제를 남긴 대회” “따끔한 예방주
사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입을 모았다. 홍명보(56) 한국 축구대
표팀 감독은 손흥민(33·토트넘), 이강
인(24·파리생제르맹), 김민재(29·바이
에른 뮌헨) 등 유럽파 선수들이 불참한
이번 대회에서 K리그 23명과 일본 J리
거 3명으로 대표팀을 꾸려 기량을 점검
했다. 기존 포백 전술 대신 스리백을 가
동했다. 중앙수비수 3명을 최후방을 맡
고, 양쪽 윙백이 공격에 가담하는 전술
이다. 투톱 공격진을 앞세운 강팀을 상
대할 때 주로 사용한다.

결과는 아쉬웠다. 한국은 한두 수 아
래 전력의 중국전(3-0)과 홍콩전(2-0)
에서는 이겼지만, ‘숙적’ 일본에는 0-1

로 패했다. 사상 첫 일본전 3연패의 오
명과 함께 준우승에 그쳤다. 일본전 패
배는 지난해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 감독이 13경기 만에 기록한 첫 패배
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국 수준 팀
에 당한 패배라는 점에서 홍명보 팀의
월드컵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
소리가 커졌다. 일본은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17위로 한국(23위)보다
높다.

박찬하 해설위원은 “월드컵 본선까
지 5~6번의 대표팀 소집 기회가 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더는 테스트가
어렵다. 동아시아컵을 통해 점검한 데



지난 15일 동아시아컵 일본전 패배 후 아쉬워하는 한국 선수들의 뒷모습. 홍명보 팀의 월드컵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연합뉴스]

이터를 활용해 선수들 전술이든 최적
의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전에서 드러났
듯 상대 분석이 부족하면 고전한다. 월

드컵 본선 조 편성이 나오면 상대를 철
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술을 준비해야
단기간 내에 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피주영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플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visiting hours: 문병시간

(Marilyn and David are talking at work~)

(매릴린과 데이빗이 직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Marilyn: Did you hear about Katherine?
매릴린: 캐서린 얘기 들었어?
David: I know she didn't show up for work yesterday.
데이빗: 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Marilyn: She checked in the hospital yesterday.
매릴린: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
David: Oh no. What's the problem?
데이빗: 아니 저런. 어디가 아프대?
Marilyn: She's scheduled to have a gall bladder

operation this afternoon.
매릴린: 오늘 오후에 담낭 수술을 받을 거래.
David: Is it serious? 데이빗: 심각하대?
Marilyn: I don't know. I couldn't get through to her room and the nurse wouldn't give me any information.
매릴린: 모르겠어. 입원실과 통화도 안 되고 간호사는 아무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
David: We should see her tomorrow.

데이빗: 우리 내일 면회 가야 되겠다.
Marilyn: Good idea. I'll find out when visiting hours are. 매릴린: 좋은 생각이야. 문병시간이 언젠지 알아볼게.
David: And I'll get some flowers.
데이빗: 그럼 꽃은 내가 좀 준비할게.
기억할만한 표현
▶ show up: 나타나다. Means to arrive at a place

where someone is waiting for you.
"When she finally showed up everyone was sleeping." (마침내 그녀가 나타나긴 했는데 모두가 잠 들어 있었어.)
▶ check in: (병원에) 입원하다. (호텔에) 투숙 수속을 끝나다. (비행기의) 탑승 수속을 하다.
"I checked in one hour early so I ate in the airport restaurant." (비행기 탑승 수속이 1시간 일찍 끝나서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어머니의 자매 (2)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 백량으로 집을 사고, 천량으로 ~ 산다 (3)철없는 어린이. 철없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5)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형구 (6)화학 약품으로 탈색하여 희게 함 (8)잘반이 넘을 수 (9)앞서 진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겨루는 일 (11)예전에, 여자들이 입던 짧은 치마 (15)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음. □지□□ (17)하나의 술잔으로 같이 마시는 술.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시는 술 (19)임금에게 올리던 글 (20)과일이나 반찬 등 음식을 담은 얇고 납작한 그릇 (23)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교육이나 강습을 함께 받은 사람. 대학 ~인 그와 나는 노년에 접어들 때까지도 절친한 사이이다 (24)갓 태어나거나 덜 자란 어린 말 (25)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배움. 그는 부모의 도움 없이 ~으로 대학까지 졸업했다 (26)말리면 굴비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국 사람은 잉어, 일본 사람은 도미, 미국 사람은 연어, 프랑스 사람은 넙치, 덴마크 사람은 대구, 아프리카 사람은 메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세로열쇠

(1)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2)오이 밭에서는 신이 벗겨져도 다시 신지 아니하며 자두나무 밑에서는 갖을 고쳐 쓰지 않음.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 □하□□ (3)쇠붙이를 곁에 붙여 지는 갑옷.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을 두른 듯 (4)집의 위쪽을 덮어씌운 부분. 눈이 내리네 산에도 들에도 ~ 위에도 (5)수수나 옥수수의 줄기. 할머니 안경은 돋보기 안경 내 동생 안경은 ~ 안경 (7)하얀 눈 (10)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 구역질 (12)나이가 같은 또래인 사람 (13)집의 앞뒤에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 (14)언니의 남편 (16)전파를 받아서 화상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17)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배우거나 수업을 받음. □□수□ (18)생물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쇠약해지는 일. ~이 들다 (21)무척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 (22)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 홀로 일어난 재해를 두려워 말고/별을 보고 걸어가자는 사람이 되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정호승). 장래 ~이 뭐니? (23)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스도쿠

		5		6		2				4
			4	8		9				
				1	4	5	8			6
5	9				6					1
	1	2	3			8			6	
			4	9						
				7	1		4	9		
1	2			9					5	
6										7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7	1	3	2	5	6	4	9
3	5	9	4	8	6	7	2	1
2	6	4	9	1	7	5	8	3
5	8	2	1	6	4	9	3	7
6	9	7	8	5	3	2	1	4
1	4	3	7	9	2	8	6	5
9	2	8	5	4	1	3	7	6
7	1	5	6	3	8	4	9	2
4	3	6	2	7	9	1	5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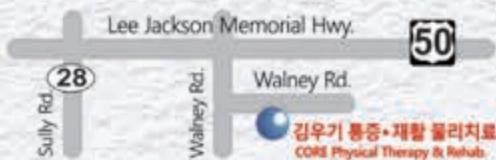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월드뱅크카드서비스]

BEAUTY SUPPLY 전용 POS

“매출증대!
MARKETING
고객폰으로
무료전송!”

초기 구매
비용 없음

최신
POS 시스템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 ◆ CUSTOMIZE 맞춤형 POS
- ◆ “MARKETING 고객폰으로 무료전송”

※ POS / ATM / 신용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7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어 아이들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토요일 가능한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컷시티
410-926-3200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풀/파타임, 베건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골든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규약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 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컷시티 롯데연 타운홈 지하방하나 옷장, 매트리스, 저널 식사 제공, 유프 \$500
443-522 -7777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프,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통방 하나, 반지하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ssistant Pastor (Youth Group): Preside and preach at Sunday worship services for youth group; Teach and train youths for knowledge of God in Bible classes and small groups in a Biblical way;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youth group members; Mak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and its BLS area. 40hrs/week. M.Div. in Theology an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 Employer & Job Place: Seoul Presbyterian Church at 6428 Ox Road, Fairfax Station, VA 22039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무직 Processing Dept.
-서류 및 데이터처리
-기본 문서작성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지원 업무
-책임감있고 성실한분 환영
풀타임/사무직 경력자 우대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이종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턴후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워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챌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리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챌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중앙일보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용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하신분)
703-750-2424 /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카운터 캐쉬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엔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 하실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글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 ·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
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벨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 있는 뒷마당, 남
향, 밝은집,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트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은
리빙룸 \$1,600 (물값&가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
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
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 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5, 화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래층 전체 렌
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난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넷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페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
그 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애쉬번 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연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센터빌 싱글홈 \$915,000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5, Gourmet
Kitchen, 워크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레이션 룸
▶703-813-8949

Stafford 싱글하우스 \$69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 업그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데크,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 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
엿,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 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
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 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국토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 건조기, 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이인빌 레이크 메나사스 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2, 페리오, 스크린 데크,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
린 앤드 유니,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
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패어팩스 코스코 근
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밝고 이쁜 집, 나무
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치 코너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음.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
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헌튼 지역)
-\$100,000
-현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6개 헤어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
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져 하오니 관심있
는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차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고가구 차단스 3 피스셋 \$4000 주고 구입.
발색, \$1000 불에 사가실분, 상태 양호
703-939-2737

소니 카메라 -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회 합니다. (면대면 및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
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연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
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
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
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우니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사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사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사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사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엑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삿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셨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20년 전문!!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셉텀프 교체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 blinds.com / bbgb 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 &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둘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레

개인 / 비즈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링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6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를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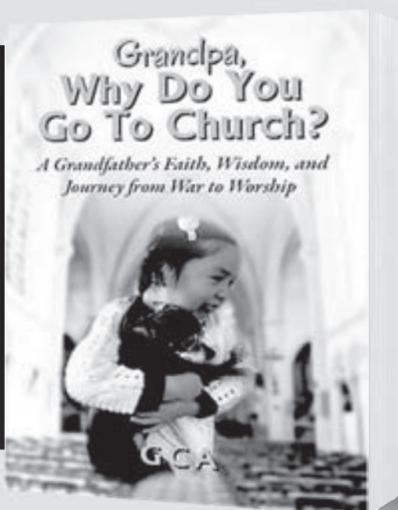


(832) 605-4890 · (281) 501-2623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젊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

특점 Triangle 타운콘도

2014년 BUILT, 방3, 화장5 (Full 3, Half 2), 4층 구조, GARAGE, 고급스러운 스타일 부엌 (Granite Countertops, SS Appliances), 아일랜드, Wood Floor, New Paint, New Deck

\$435,000



특점 Annandale 타운홈

2 Car Garage, 엔드 유닛, 방4, 화장5 (Full 3, Half 2), 4층 구조, 2020년 BUILT, 밝고 환한 럭셔리 홈, H-MART 가까움

\$710,000



Contract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장3 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Sold

특점 Stafford 싱글홈 렌트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3,600



Rente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